



자활에세이 17번째 이야기



발 간 사

자활 참여자와 현장 실무자의 눈물과 웃음, 좌절과 성공의 이야기를 담아 발간한 수기집이 벌써 열일곱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기집에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며 희망을 꽃을 피워온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20편과 그 터전에서 함께 하며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 7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7편에 담아 보내드린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하게 스며들기 바랍니다.

이번 성공수기 대상 수상자인 이경숙씨도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영농 사업단, 산모도우미, 가사간병, 재가센터, 자활봉사단, 커피사업단의 다양한 사업을 거치면서 근로능력을 키우며 성장의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제도 안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두 아이를 훌륭히 키워내고 자활사업을 참여하면서 고민과 좌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나를 새롭게 하고 소중한 삶을 주었다고 말하는 이경숙씨의 경험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희망의 열매를 맺은 분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신 사회복지 공무원과 자활 실무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다양한 환경에 처한 분들이 일할 의지만 있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자활참여자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또한, 자활사업 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차 례



성·공·수·기

- 대 상** 부산 이경숙 아모르 파티 • 09
- 최우수상** 경기 엄옥희 인생은 패자부활전이다 • 16
- 우수상** 경기 김영숙 자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 22
 부산 박미경 또 다른 삶이란? • 28
 광주 유서정 '자활' 터널 끝에 핀 이름! • 33
- 입 선** 경북 강쌍남 그 끈을 결코 놓을 수 없었다. • 41
 서울 이하은 코리안 드림 • 47
 충북 이숙자 환갑을 바라보는 나에게 꿈이 찾아왔다. 마치 봄날처럼. • 55
 전남 홍미향 좌절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 • 63
 경기 이경옥 가온누리, 자활로 세상의 중심이 되다 • 71
 경남 고경희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다 • 76
 부산 김종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 84
 광주 김두식 나의 자활은 9회말 투 아웃 만루홈런~ • 88
 대구 이경환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 95
 부산 하루미 자활센터와 함께 한 나의 '인생 3막' • 99
 서울 백단오 자활에서 찾은 나의 꿈, 나의 일 • 106
 경기 임은애 내 삶의 정년 '췌클린광주' • 113
 부산 최지호 자활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하다. • 118
 경북 김세옥 낯선곳에서 찾은 희망의 길 • 123
 부산 김현영 81년 김현영, 새로운 출발 선에 서다 • 130



공·로·수·기

- 최우수상** 경기 김은정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한 자활을 꿈꾸며' • 139
- 우수상** 부산 전민주 자활, 그 매력에 흠뻑 빠지다. • 148
경기 김미선 삶에 대한 희망으로 꿈꾸는 자활 춤추는 세상을 그리며... • 156
광주 김수아 나를 성장시켜준 당신의 웃음 • 164
- 입 선** 경기 류현희 '희망의 씨앗이 꽃을 피우다' • 173
부산 안태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한걸음 • 179
대구 임미애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드리겠습니다." • 186



성공수기

• 대상 •



아모르 파티

부산 - 이경숙

산다는게 다 그런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같은 한 편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걸 잘 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2017년 사하지역자활센터 송년의 밤. 센터 선생님들이 행사 중간에 아모르 파티 노래에 맞춰 신나는 율동과 파격적인 의상들로 정말 배꼽이 빠질 만큼 노래가 끝날 때 까지 신나게 모두가 하나 되어 마 음껏 웃었던 기억이 난다.

그 시간만큼 웃음으로 하나 되었던 시간이었다.

그 날 이후로 지금껏 흥얼거리며 가끔은 혼자서 울동도 해 본다.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단어이다.

자활의 꽃. 취업. 탈수급.

난 오늘도 내가 키운 꽃을 가꾸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일터로 향한다.

“안녕하세요.”

변함없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아침 인사를 건네며,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을 사랑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지금은 마음껏 즐기면서 숙련되어 있다. 이 일 또한 이렇게 사랑하
기까지 그 동안의 땀과 눈물이 손에 눈에 가득 배여 있다.

쇠 파편에 손에 가시가 박히고 찢리고 수 없이 반복되었던 그 시간
속에 나의 눈물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도 즐겁게 이 일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쇠를 다듬는다

깎이고 다듬어져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나뭇잎의 모양으로 제품이

되어 만들어진다.

마치 내 삶의 모습처럼.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좋다. 투박하고 못생긴 쇧덩이가 도면에 따라 눈부시게 빛나는 제품이 될 때 난 강철의 연금술사라며 혼자 웃곤 한다.

그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소중한 하루가 지나간다.

내가 사랑하는 이 일을 하기까지 나의 뿌리가 되어 왔던 사하지역 자활센터. 나는 사하지역자활센터의 수많은 자활사업단과 그 안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다.

처음 참여한 영농사업단

불행했던 결혼 생활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었고 힘든 노동을 통해서 서로 도와가는 협력을 배웠고 같이 다 함께 밥을 해먹으면서 한술 밥 먹는 식구의 의미를 동료들을 통해서 배웠다.

산모도우미 사업단

산모도우미 사업단에서는 일의 성취감도 배웠고 산모께서 시칭홈 페이지에 너무 고맙고 친절한 산모도우미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고 올려주신 덕분에 센터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 덕분에 각종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연수 등 센터 대표로 참가해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얻는 귀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가사 간병 사업단

사업단 반장으로 일하면서 참여자와 대상자 간 중개 역할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2년여의 반장의 기간 동안 유일하게 민원으로 애로사항이 적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사업단 참여자들 간의 분위기 또한 최고로 좋았던 때라고 하셨다. 사무실 팀장님께서 자활의 전설이라는 과분한 칭찬까지 해주셨다.

“반장님도 전설이에요. 반장님이 가는 곳은 분쟁이 해결됩니다. 참여자들 간의 싸움이 없어집니다.”

이 최고의 찬사는 지금도 나의 주위를 돌아보게 만든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팀장님 덕에 아직도 나는 춤추고 있는 중이다.

어느 곳에 있던 무엇을 하던 내가 진심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하다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해 준 가사간병 사업단이 있었다.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세상의 이치를 비로소 그 때 알게 되었다.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가센터에서 근무할 때 대상자 등급신청을 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등급이 나오기까지 한달여 동안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방문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은 ‘아, 이 일이 내 천직이구나.’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했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사업단인 커피 사업단이 만들어졌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배울 때 커피향에 빠져 있었던 행복하고 달콤했던, 아주 달달했던 예가체프 드립 맛에 신세계를 알게 되었던 때였다.

지금도 커피숍의 커피를 마시면 대략 커피의 원산지를 알 수 있을 정도니까. 가끔 맛있는 커피맛이 달달했던 구청 카페를 떠올리게 한다.

힘들었던 그 시절.

커피열매 사업단은 나에게 행복한 휴가같은 달콤한 기간이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나에게 구청 맛조이에서의 찬모의 모험은 가장 두려웠던 기간이었다.

밤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던 시간이었다. 내가 가장 자신있어하는 서비스라면 그저 진심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면 되는데.....

맛을 내야 하는 일하기에 정말로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고민했던 때였다.

‘어떻게 하면 맛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이 있을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은 무엇을 만들어도 정말 맛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먹어도 정말 맛있다. 이제는 음식에 자신이 생겨 틈만 나면 먹고 싶은 음식을 손수 만들어 먹는 취미까지 생겼다.

맛조이 반장님의 코치 덕분에 지금은 음식에 두려움 없이 맛있는 음식을 잘 해 먹고 있다.

사하지역자활센터의 여러 자활사업단을 거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다양한 사업단을 체험하고 근로하면서 일을 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사업단 동료들, 손님들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본 경험이 다른 사람 앞에서 떨지 않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사하지역자활센터에서 경험한 새로운 일은 자활봉사단 활동이었다. 자활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뿌듯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고민하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사하지역자활센터에서의 꾸준한 상담과 자활봉사단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처럼 사하지역자활센터에서의 기억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더 나은 삶을 위해 노

력할 수 있게 해 준 원동력이었다.

나의 두 아이들

큰아이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다. 초등학교 6년동안 반장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반장을 할 정도로 열정적인 아이이다.

초등학교 금강산관광, 중학교 백두산관광, 학교대표, 구 대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과 대학 학자금까지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제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

지금 사회인으로 나아가는 두 아이들이 학자금 대출의 압박 없이 흥가분하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이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는 두 아이의 장래가 희망적이어서 너무도 감사하다. 작은 아이는 청년취업 패키지에 가입해서 지금은 2년째 중소기업에 근무중이다.

지금의 내 삶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소중한 제도 안에서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게 해 준 사하지역자활센터의 지원과 열심히 나아가려는 내 의지와 함께 가꾸어 온 소중한 나의 삶이다.

행운은 행운에게 미소짓는 사람에게 다가온다고 한다. 그래서 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미소를 먼저 건넨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행운이다.

• 최우수상 •



인생은 패자부활전이다

경기 - 엄옥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 성공자 수기를 써보라는 부탁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치료와 위로의 손수건 같은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와의 만남'

정채봉 시인이 쓴 만남이라는 시의 내용을 보면 만남 중에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 같은 만남, 비린내 나는 만남이 있다고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생을 끝내려고 했던 저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치료와 위로의 손수건 같은 곳입니다.

자활센터에 오기 전, 직장에 인감을 제출한 것이 화근이 되어 어렵

게 장만한 아파트가 압류되고 결국에는 경매처리까지 되었으며, 거기에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어린 4살, 6살 두 남매를 데리고 살아갈 일로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전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도 불가능했으며 통장도 핸드폰도 제 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암흑과 같은 고통의 나날 속에서 저의 친 언니들이 용기 주는 말을 하면서 위로해 주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 눈물만 나고 급기야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세상을 한탄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봐서라도 살아야겠기에 임시 직장을 여러 곳 전전하였는데 다니던 임시 직장마저도 문을 닫게 되어 무기력하게 집에 있던 어느 날, 친구가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본 것이 ‘만남’에 발을 붙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의무적으로 경과적 일자리에 참여해야 하는데, 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빠짐없이 참여하다 보니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삶에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안정을 찾은 후 사업단 팀장으로서 팀원의 성장을 견인

저는 만남지역자활센터에 와서 잃었던 웃음을 다시 찾았고 가지고 있던 상처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했으며 삶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들어간 사업단은 장애통상보조원 사업단이었습니다. 분당 중앙고등학교 특수 실무사로 1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수반이다 보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하시지만 저는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전부터 시각장애인 봉사, 소록도 봉사,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나의 조카나 자녀들이라 생각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대해 주었더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도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때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비록 장애아이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수실무사로 1년의 근무를 마치고 분당에 있는 울동공원 만남 매점 서비스유통 사업단으로 이직하여 2년 6개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팀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30~40분 일찍 출근을 해서 직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늘 부실한 팀원들을 위해 저희 집에서 정성껏 밥과 반찬을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화합을 다졌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미용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전면허증도 취득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단 팀원들도 설득하여 같이 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행운 ‘자활기업 밀알점’ 창업

무엇보다도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일 없이 성실하게 2년 6개월을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니 제게도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사업단 팀원 두 분과 함께 밀알이라는 이름으로 자활기업 cu편의점을 창업하게 된 것입니다.

7~8개월간 시장 조사와 사업 아이템 확정 과정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으며, 창업 멤버간의 협업 체제 구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이것 또한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견뎌냈으며, 창업 멤버들을 독려해가며 창업을 완수하였습니다.

과정은 고됐지만 지금 저희 자활기업에서는 취약계층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편의점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직원들과 함께 푹푹 뭉쳐서 노력하여 자활기업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천군만마가 되어준 '내일키움통장'

또 하나 특별히 감사한 것 중의 하나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인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했던 것이 저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자활 근로 급여가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가기에는 부족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일키움 적립금 수령으로 목돈이 생겨 빚을 단번에 다 갚을 수 있었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지금도 해밀주민협동조합에 가입해 조합비를 적립하고 있고 희망키움통장도 만들어 목돈 마련을 위해 꾸준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이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6년째 매달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 단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딸은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많이 컸습니다. 딸은 내년에 유아교육학과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아들은 성일정보고등학교 회계정보과에 다니고 있는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늘 학원 하나 변변히 못 보내준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주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가 절망과 좌절에서 울고 있는 저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활기업 밑알도 열심히 해서 매장도 확장하고 매출도 향상시켜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의지할 언덕이 되어주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발판을 마련해주시고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면서 후원해주시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일하시는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무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우수상 •



자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경기 - 김영숙

가수는 노래제목처럼 산다고 하나요? 저는 한 때 제가 소피여서 소처럼 일복만 가지고 태어났나 싶어 태어난 띠조차 원망하며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27세 적지도 많지도 않은 나이에 가난한 남자 만나, 부모님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본가 동생 학비도 책임져야 했기에 짐이 늘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였을까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인쇄소를 시작해 보겠다고 해 친정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집을 담보로 대출과 카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남편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밤낮없이 부지런히 일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늘 버거운 날들이었고 급기야 은행에서 차압까지 들어와 티비에서나 보던 빨간 딱지들이 온 가전제품과 아이의 유모차에까지도 붙었습니다.

남편은 잠적해 버리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빗 독촉과 함께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칼을 꺼내 벽지며 식탁까지 찍어대며 이제 갓 돌 지난 아이 앞에서 공포와 협박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방긋방긋 웃는 아이 앞에서 선택의 여지도 없이 딸 아이를 안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혼 전에 피부미용 일을 해서 관리실을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관리실 특성상 아이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다행스럽게 방하나 내어주고 먹고 자고 만두도 빚고 홀 써빙도 할 수 있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와 식당허드렛일까지 하며 부지런히 일했지만 밤새 울어 부어 있는 얼굴과 침울한 표정과 수시로 엄마 찾아 때 쓰는 아이까지 사장 부부도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부부는 방 얻을 때까지만 비어있는 방은 내어줄 수 있지만 일은 그만두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이후로 본가를 통해 남편과 간간히 연락이 닿았지만 이미 폐인의

모습이었고 힘든 나에겐 더 짐만 될 뿐이었습니다.

이혼과 함께 부모님께 간곡히 사정해 보았지만 여전히 아이와 함께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셨고 천만원을 주시며 아이문제는 잘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피눈물이 났지만 그 돈을 받아 월세 방을 얻고 결혼 전 일하던 곳 원장님 소개로 피부 관리실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6시까지 맡기고 나머지 퇴근시간 11시까지는 동네 할머니께서 봐주시기로 하고 열심히 일하며 아이 돌봐주는 비용과 남편이 남긴 카드빚까지 나눠 갚으며 억척같은 생활을 하였지만 아이가 유치원 다닐 무렵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몸을 튕기며 반복되는 행동을 해서 단순히 버릇이겠거니 하며 그때마다 주의 주며 지나쳤지만 아이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하게 되어 병원에 가봤더니 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틱이 심해져 음성 틱까지 넘어간 상태라며 아이의 치료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아이와 함께하고 생활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 밤 11시까지 남의 손에서만 자라야했던 아이의 맘에 병이 들었나 싶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바로 일을 그만두고 아이와 병원치료하며 낮 시간에만 할 수 있는 마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부모님도 아이와 독하게 사는 딸이 밋기도 하고 안쓰러운 맘이 드셨는지 아이도 보러와 주시고 그때마다 경제적 지원도 조금씩 해 주셨지만 늘 빗 값기에 바쁘고 주말에는 마트가 더 바쁜 시간이기에 또 아이는 그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그 때 내 고충을 아는 동료가 읍사무소에 가보면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읍사무소를 방문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희망근로를 뽑는다며 일해보자고 했고, 상황을 들어보시던 사회복지사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라는 걸 신청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희망근로를 시작하며 주말마다 쉴 수도 있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일자리였습니다. 몇 달을 일하던 중 사회복지사가 자활근로라고 있는데 자활센터에 찾아가 보라고 하셔서 용인지역자활센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해본 자활 분위기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뭘지 모르게 인생의 패배자들만 모인 장소인 듯 무기력하고 뭔가 도움의 손길만 바라는 모임에 나까지 한몫 보탠다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어 늘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부모가정으로 등록되고 기초수급자로 지정되면서 병원비도 천 원이면 진료가 가능했고 현실적으로는 너무 만족한 금액으로 받는 진료였지만 그 모든 게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자활에 참여하면서 실장님과 팀장님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노력에 조금씩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활을 거쳐 떳떳하게 경제활동에 참여중인 여러 사례를 들으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함께 캠프도 참여하고 소아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으며 아이와 함께한 결과 아이의 턱은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게 없어졌습니다.

저는 청소사업단에 청소일을 하는 중, 팀장님으로부터 장애 아이를 돌보는 자리가 있다며 모현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로 출근하라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학교 장애인 활동보조 일을 했습니다. 딸아이도 겪어 보고, 장애 아이들을 돌보며 더 배워 전문적으로 일을 해 보고픈 마음에 팀장님과 상담 하니, 야간대학 사회복지과를 가보는 것도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라 등록금도 면제 될 거라고 말과 마침 자활 동료 중에 사회복지과 진학해서 야간대학을 다니는 이가 있어 대학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딸아이 챙기며 낮에 일하고 밤늦게까지 하루에 버스를 네 번씩 번갈아 타며 다니는 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엄마로서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낮엔 학교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고, 밤엔 공부하는 엄마를 보며 딸아이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사회복지사 과정을

야간으로 마치고 특수교육지도사로 정식으로 고등학교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한테 당당한 엄마가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이후 목공생활공예 자격과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지만 조그마한 내 가게를 가지는 게 꿈입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가입으로 열심히 저축해, 목돈도 마련하고 조금씩 급여도 올라서 이사 계획도 세웠습니다. 딸아이도 대학공부와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 기초수급과 차상위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병원비도 남들과 똑같이 내고 진료 받게 되어 무엇보다 떳떳하고 뿌듯합니다.

지난 십여 년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보호받는 안전함도 있었지만, 도움 받으며 산다는 자격지심에 무거웠던 마음이 이제는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였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준 용인지역 자활센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수상 ·



또 다른 삶이란?

부산 - 박미경

저는 남편과 함께 큰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타 의류 매장보다 매출이 많아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던 중 IMF가 발생하였고, 저 역시 IMF 피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을 축소하고 은행에 대출을 내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자를 못 갚은 날이 생기고 어려운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 달 정도를 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퇴원 후에도 휴식을 취해야 했던 상황이라 일 조차할 수 없어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에서 사상자활센터에 내방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이 저에겐 좌절감과 패배감을 들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괜한 자존심으로 가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지만 점점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면서 상담을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첫 방

문을 하였습니다.

초기상담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질문들을 받았지만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살아 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실패했던 경험들을 꺼내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 담당 팀장님께서 환한 미소로 괜찮다면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께서서는 차분히 들어주셨습니다. 처음 자활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이곳에서 더 밝은 미래를 꿈꾸어 나갈 수 있다며 저를 독려해주셨습니다. 담당 팀장님과 상담 끝에 자활근로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팀장님께서 저에게 학교도서사서 전담(반장)을 추천해주셔서 전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서 전임으로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설명해주셨고 이에 맞게 동료들에게 한발 앞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서사서’라는 업무는 반납 및 대출 업무뿐만 아니라 한글, 엑셀 등 문서작성능력을 요구하는 업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교도서관사서에 관련된 교육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강하였고, 근무를 마치고 바로 컴퓨터 학원에 다니면서 문서 작성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후 어떤 문의가 들어와도, 동료들의 도움요청에 완벽하게 답변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도서관사서는 업무에 필요한 독서지도사, 미술심리상담사, 학교폭력예방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그저 돈벌이 수단이 아닌, 나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도전하고 싶었고, 그 도전에 도장 깨기 하듯 하나씩 성공해 나아갈 때마다 나의 미래는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참여자에서 실무자로

자활근로사업을 시작한지 2년째 되는 해에 계속 자활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자활이 아닌 일반 취업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자활센터에 있으면서 담당 팀장님들의 업무를 보며 사회복지에 관심을 키저갔습니다. 저는 사례관리 담당 팀장님께 교육영역 사례관리를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때문에 미처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여서 늘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원하는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하니 너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일을 하고 끝나자마자 수업을 들으니 힘들고 너무 지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담당 팀장님의 격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생각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학업에 전념하였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2년 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어느 날 사상지역자활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주변에서 많은 격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당일 너무나도 떨렸지만 이제껏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하였고 성공적으로 면접을 마쳤습니다. 면접 후 합격 통화를 받았고 그 순간 긴 시간의 과정들이 한꺼번에 뇌리를 스쳤습니다. 벅찼습니다. 처음 자활센터를 소개 받았을 때 느꼈던 좌절감과 패배감이 떠올랐고, 이를 견디고 이겨냈던 과정들도 떠올랐습니다. ‘자활’에 성공한 제 자신이 스스로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벽 안에 갇혀서 혼자라 생각 하지 말고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길은 있고 곁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설령 지금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하

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면 어김없이 좋은 날이 옵니다.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상지역자활센터에 첫 방문 당시 팀장님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제 마음 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수상 •



‘자활’ 터널 끝에 핀 이름!

광주 - 유서정

애교쟁이 요양보호사

‘잘 주무셨어요?’ ‘야, 이*아! 어디 갔다 이제 오냐?’

밤새 잠 못 자고 기다리다 죽을 뻔 했다.’

‘아~ 그러셨어요, 어르신 좋아하는 간식 준비하고 오느라고……’

‘응, 그런 거 어디가면 안 돼~~’ 똥과 오줌으로 범벅된 침상을 보며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나 슬퍼요~’라며 이야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마는 멍하니 쳐다보고 넋을 놔버린 슬픈 몸. 치매 어르신들이 주로 입원하고 계시는 요양병원에서의 나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매일이 전쟁이다. 서글픈 노래 소리,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 우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집에 보내달라고 떼쓰는 소리. 간호사, 요양보호사들의 호출 소리. 우리도 곧 늙을 것인데 가슴이 아프다.

현실과 실전

10년 전 간암으로 인한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전업주부였던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을 한 경험이 없었던 나는 지인의 도움으로 화장품 판매와 피부관리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소개로 판매를 하고 실적도 꽤나 좋았다. 주변의 도움으로 판매하는 성과는 1년을 넘기지 못했다. 그래도 처음 시작한 일 잘 해보고 싶어 차도 없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날이면 날마다 살고 싶어, 참 잘도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하루 이틀 외박을 하더니 연락이 끊겼고 사채를 썼다며 빚을 내놓으라는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여전히 아들과는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딸은 거의 말을 잃어가고 사채업자들은 내가 일하는 화장품 대리점으로 찾아와 회사로 연락한다고 전화로 욕하는 건 다반사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좌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딸은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 전화는 코드를 빼놓고 낮이나 밤이나 커튼을 쳐놓고 나갈 줄 모르고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자활이라는 씨앗

아직 신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내게 화장품을 쓰겠다고 전화가 왔다.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무조건 나오라고 하고 위로하고 본인이 그동안 화장품도 안사고 연락을 못했던 사연을 이야기 하면서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살아갈 수를 찾아보자고 했다. 다음날 주민센터를 찾아가 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하고는 뭔가를 신청해주고 한 달 정도 후 구청에서는 전화로 '자활교육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다음날 지역자활센터에서 상담하게 되었다. 우선 교육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아보자고 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의 씨를 뿌려 준 '자활!' 선글라스에 모자 눌러쓴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다. 첫 날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는데 순간 얼마나 편안했던지 거의 30분 넘게 울기만 했다.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해도 눈물 나고, 화장지를 건네주는데도 눈물이 나고, 얼굴을 들고 봐도 눈물 나고 그렇게 자활센터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교육을 받는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수급자가 된 사람, 어린 나이에 아이들과 남은 젊은 엄마, 알코올 중독의 독신 남자들,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사연과 이야기가 난무하는 교육장, 그런 교육장에는 늘 정이 넘치고 사랑으로 가득한 팀장님이 있었다. 난 교육장에 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팀장의 이야기라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했다. 여러 차례의 상담을 통하여 힘과 용기가 생겼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

그렇게 세 달이 지나고 무조건 사업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또 늘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칭찬이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다. 참! 어느 순간부터 팀장님을 ‘동생팀장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참여 기간이 끝나고 제빵 사업단에 참여하게 되고 곧 반장(나이 순으로)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녹록하지 않았다. 순간마다 교육장에서 많은 교육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생팀장이 생각나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다. 내 이야기를 아무 말 없이 들어주고는 ‘애쓰시네요!’ ‘너무 잘 하고 계신데요!’ ‘믿어요!’ ‘멋져요!’ 누구나 하는 특별한 이야기도 아닌데……그런데 내게 어떤 보약보다 영양제보다 큰 힘이 되었다. 나에게 자활은 새로운 출발이자 현실이었다. 급여는 꼬박꼬박 나온다. 6개월 정도 후에 급여에 맞게 잘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소박함에 웃음이 났다. ‘그래 기다리자’ ‘우리 아들도, 딸도, 이해하고 기다려 주자!’

꿈을 나누는 자활전도사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우울했던 환경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겼다. 오래된 임대아파트! 이웃들의 아픔들이 고스란히 나의 아픔과 우울로 연결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업단 사례선생님께 ‘혹시, 이사가 가능한지를 문의했더니,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센터 사무실 근처에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를 신청해 보라고 권해 주셨다. 바로 신청하였고 얼마 기다리지 않아 새로운 이웃들이 있는 새 환경, 새집으로 이사하였다. 날마다 작지만 소중한 행복이 하나하나 쌓이고 그렇게 힘들고 무겁게 느껴졌던 빛도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

어느 순간 난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그렇게도 힘들고 부끄러워했던 자활이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닌 전문가(팀장님, 사례관리 선생님, 동생팀장)선생님들의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은 일자리 전도사가 되어 만나는 사람들 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이야기와 자활센터 동생팀장 이야기로 일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다 된다며 벌써 두 분을 동 주민센터와 상담하게 도왔다. 이런 일들은 나에게 희망이고 절망인 분들에게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다.

또, 시작한다.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생각이 바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늘 꿈꾸던 창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마음이 급해졌고,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여 빨리 창업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가입 2년 정도 되었을 때 1년 후 조그만 카페를 차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은행을 방문한 후 만나지 않아도 될 절망을 또 만났다.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설령 내일키움통장 만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급탈락도 어렵고 그 돈 가지고는 창업을 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했다. 앞이 막막했다. 곧 터널을 빠져나가 밝은 빛을 볼 줄 알았는데, 마음이 힘들 때면 늘 몸도 같이 힘들어 졌다. 돌파구를 찾아야한다. 힘들고 지쳐서 곧 죽을 것 같을 때 전화를 할 수 있는곳!

‘동생팀장님! 나 자활 그만하고 싶은데’ ‘예~ 계획은요?’ ‘아직...’

‘내일키움통장 타도 할 수 있는 장사가 없어. 통장 해약해야 할까봐.’

‘아~ 그렇구나!’ ‘나 다른 사업단 갈 수 있을까?’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니, 그냥...’ ‘다른 사업단 가서 내일키움통장 다시 가입하고 3년 더 일하면 어떨까?’ ‘좋아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생각해보시게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청소사업단에 참여를 위한 상담을 하고 바로

일을 하게 되었다. 성과금도 내일키움통장 수익금도 최고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얼른 참여하겠다고 했다. 많이 울었다. 자활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다. 출근할 때부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리고 그 더운 여름에 땀으로 샤워를 하면서도 복면을 풀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래도 일 할 곳이 있음에 감사야만 했다. 어린 사례관리 팀장이 안부를 묻고 아프다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을 연결해주고, 이가 아프다고 하면 치과를 연결하여 편안하게 치료받게 도와주고, 가족 보다 더 가족 같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자활센터가 가까이에 있어 늘 든든한 의지처가 되었다. 청소 사업단에 참여하는 3년이 힘들고 서러워서 평생 울 것을 다 울었던 것 같다.

을 2월 내일키움통장 3년 만기 지급대상자라 연락이 왔고 자격증(요양보호사)도 취득으로도 가능했지만 꼭 취업을 통해 자활하고 싶었다. 동생팀장을 만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고 취업을 위해 참 많이도 다녔다. 나이가 늘 걸림돌이었으나 자신감은 그 나이를 이기게 했고 눈물로 콧물로 성실하게 보낸 자활에서 5년을 인정하여,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기에 이르렀다. 3개월 급여를 수령 후 재직증명서와 급여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는 ‘나 이런 여자야.’하고 품 좀 잡았더니 자활센터 팀장님들이 자기 일처럼 축하해줬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성공 후에 맛보는 또 다른 시작

아들이 진 사채도 이제 서서히 갚아져 가며 아들도 가끔 잘 지낸다는 연락도 온다. 딸은 잠시 힘들었던 방향을 극복하고 착하고 듬직한 신랑을 만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녀딸을 내게 안겨 주었다. 매일 매일이 행복하고 또 감사하다. 오늘도 난 애교쟁이 요양보호사로 치매 어르신들은 내 부모인양 성심성의껏 돌봐드리고 있다.

작은 성공일지라도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다시 성공을 위해 최선의 목표를 향해 뚝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순간 자활이라는 빛은 터널 속에도 여전히 밝은 통로를 열어주고 있고, 그 터널 끝에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름 모를 풀꽃들이 피었을 것이다.

• 입 선 •



그 끈을 결코 놓을 수 없었다.

경북 - 강쌍남

지난 세기가 끝나는 1999년까지는 부유하지는 않아도 남편과 네 명의 자녀가 즐겁게 살아왔다. 그렇지만 경제적 창출이 거의 없고 가난이 심하여 삶이 힘들었지만 언제 간 경제력도 좋아져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과 자부심으로 뭉친 정신력으로 살아왔었던 것 같다. 아무리 정신력으로 무장하여도 현금 수입이 전무하다시피하고 어쩌다 들어오는 수입이 경제성장으로 오는 돈 값어치 상승을 따라 갈 수 없어서 항상 절망감을 느끼며 살아 왔다.

이런 찰라,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 ‘기초 수급자’가 되어서 가장 기초적인 생계는 유지 할 수 있었지만, 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았으니 특별히 배운 기술도 없고 학식도 없으니 하루하루를 거저 “나는 이렇게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 가야하는 운명을 타고

났다 보다.”하는 포기하는 심사로 일관하며 살아 왔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 해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노력하여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나 각오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인 것임을 느끼지 못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렇게 안일한 타성에 젖어 살다가 우연히 고령읍(지금:대가야읍으로 명칭 변경됨)사무소 복지담당관의 ‘고령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할 것을 안내 받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지금껏 직장 생활을 해 본 경험이 없으니 걱정이 앞서고 어린 자녀 뒷바라지는 누가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섞여서 선뜻 용기를 낼 수 없었지만, 사회복지사의 자상하고 끈질긴 설득에 힘입어 고령자활센터장님의 상담을 했었다.

매우 자상하고 무엇보다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 격려 말씀에 ‘그래 해 보자! 아무려면 지금 보아야 낫겠지. 일단 시작해 보자.’하고 시작한 자활 근로가 나의 제2의 인생 즉 축복을 보장 해 주는 뜻하여 너무나 즐겁고 행복에 찬 근무가 시작 된 것이 2004년이였다.

거듭 태어난 난 [청소 사업단]에 배치되었다. 가정주부로서 청소하고 밥하는 것이야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는가? 자활센터 담

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일대일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일할 청소사업의 성격과 업무 파악 등을 세심히 지도해 주시니 너무나 고마웠고 이젠 아예 부푼 자신감마저 들었다. 지금껏 생활해 오면서 많은 이웃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보았지만 이렇게 자상하게 또 본인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동반자가 되어 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던가? 늦 복이 터졌나 보다.

그러나 웬걸? 청소가 단순히 쓸고 닦는 것이 아니라 오염정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청소하는 방법에 따라서 장식품이나 변기에 부착된 기구들이 손상될 수 있음도 교육을 받으면서 세삼 알게 되었고, 청소 하면서 생기는 폐기물이 자칫 잘못 하면 환경오염을 유발 할 수도 있고 당장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마음의 재 무장 등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이 일이란 것을 몸으로 배우기까지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즐거운 걸 어찌랴? 소책자를 주시기도 했지만 역시 무식한 나에게는 담당자를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질문하고 배우고 또 잊어먹고 다시 꾸중과 함께 배우고 하면서 근무할 수 있었다.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외운다.’ 했듯이 일도 익숙해지고 자긍심도 생길 즈음에 우리 집안에 날벼락이 내리 처졌다. 조금만 더 노력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도 남의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겠어.’하는 나의 자긍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남편의 무단가출 사건은 나를 미치게 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잡다한 수군거림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 들었으니 얘기들을 보아서 마음 단단히 다잡아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위로 해 주는 옆집 할머니의 말씀조차 귀찮고 부끄럽고 차라리 꼭 죽어 버리는 것이 좋을 듯하여 자살을 하고 싶었고, 하다못해 나도 가출 해 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큰딸은 살림밑천이라 그 누가 말했던가? “엄마 죽지 마. 우리가 있자나? 지금은 어리지만 커서 효도 할게. 엄마 우릴 버리지 마.”하며 매달리는 큰 딸과 울면서 약속한 말이 “그래 우리 다시 살아보자.”하며 마음 다잡고 매일마시든 술도 그만 두었다. 자식들을 바라보며 가정을 다시 행복하게 꾸려 보자고 간곡히 설득하였으나 한번 어긋난 남편은 마음의 상처를 다독이지 못하고 4년 전 그렇게 몸부림치던 날 협의 이혼을 하고 떠나갔으니 그야말로 절벽에 떨어진 신세가 되었다.

‘미워도 내 신랑’하면서 의지하던 떠나간 사람은 정말 매정하게도 교육비는 커녕 생활비 한 푼도 보태주지 않고 방탕한 생활로 망가져 가고 있다는 풍문만 간간히 들려오니, 난 눈코 뜰 새 없이 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못 배운 설음을 저 아이들에게 대 물림 알아야

하니 그야 말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을 하여야 했다.

출근시간이 되기 전에 일터에 가서 시작하고 중간에 출근부 확인하고 나서 다시 주민들이 등산이나 산책하기 전인 이른 시간에 공원 귀퉁이에 있는 공용화장실 문짝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려 본적이 다 반사였다. 얼마나 급했으면 좌변기를 벗어나 화장실 바닥에 흠뻑 쏟아 놓 구토물을 볼 때나 조금이라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변을 보라고 실내에 부착해 둔 게시물이거나 시를 쓴 판넬속의 시화조차 부욱 찢어서 휴지통도 아닌 대변기 속에 버려놓은 잘못된 양심을 볼 때는 상당히 괴로웠다.

때로는 고령에서 상당히 높은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조그마한 음료수라도 건네주시면서 “힘내세요. 좋은 일도 있을 것 입니다.”라고 해주실 때는 정말 즐겁기도 했다.

이렇게 희망찬 꿈에 부풀어서 근무하던 중에 2017년 12월에 고령 자활센터의 도움으로 [굿 클린 케어]란 명칭으로 청소 전문 업체인 자활 기업을 창업하게 되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쁨도 맛보게 된 것이 영광중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쉴 틈 없이 내 인생을 살다 보니 밝고 좋은 일들이 찾아 왔다. 큰딸은 시집가서 손주를 안겨주고, 막내아들 허정호는 그 흔한 학원 한번 못 보냈는데 아르바이트하는 틈틈이 공부하더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경산시에서 근무 중이다. 평소에도 엄마의 직업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지만 행정직으로 합격하고서도 엄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사회복지 분야에 자원하여 엄마처럼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 하겠다고 하니 또 하나의 나의 기쁨이다.

비록 크게 자랑 할 인생을 살아 온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 앞에 이 혼이란 흠집 외에는 큰 과오 없이 열심히 살아 온 인생인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며, 인도자로서 때론 동반자로서 도와준 고령지역자활센터장님을 비롯한 사무실 분들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자활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부족 한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다.”를 전하고 싶다.

• 입 선 •



코리안 드림

서울 - 이하은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다문화가정이며,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12살, 13살 난 두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50여년 전 저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북부지역으로 약 300km 떨어진 루손섬의 작고 가난한 마을에서 10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으며, 8명의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며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가 갈 나이가 된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학교를 갔습니다. 공부하기를 너무나 좋아했고, 가르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도 제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며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제한된 수입으로는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힘들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대학에 진학하고 난 뒤에는 필리핀의 “싱가포르제과점”에서 파트타임

으로 일하며, 학비를 충당하였습니다.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일하며 대학을 졸업했고, 교육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제가 그렇게도 간절히 꿈꿔왔던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루손지역의 라무트센트럴 스쿨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뛰어놀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가르치던 학생들 중 일부와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교사로 취직한 저는, 부족한 아버지의 수입에 제 급여를 보태 동생들의 교육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 8명의 교육비는 커녕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었고, 우리 가족을 위해 교사직을 그만두고, 급여가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기로 했습니다. 이직 전 저는 저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고자 여행을 가기로 결심 했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이었고, 그 때 나이 24살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본 한국은 바쁘고 활기가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았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문득 ‘이곳에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행이 끝난 후 필리핀으로 돌아가 한국으로의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서대문에 위치한 직장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이 회사는 NBA, MLB, 하키 등 스포츠 유니폼 디자인과 로고 디자인업무를 하는 곳으로, 저는 디자인 파일 샘플을 보관하고 승인 받는 일과 수출용 물품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저는 13년 간 이곳에서 일을 하였고, 13년 동안 단 한번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필리핀 마을에 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그리운 마음을 참고 누르며, 일만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필리핀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보다 3배나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동생들과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었고, 2004년 11월에 같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2005년 1월에 결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 두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출산 후, 기억을 더듬기도 싫은 두려운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피부색이 검은 두 딸 아이를 싫어했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둘 다 독자(獨子)였던 터라, 아들을 낳아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남편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시시콜콜 다양한 이유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저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고, 저의 결혼 생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5개월 된 둘째 딸아이를 필리핀으로 보냈고, 돌이 지난 첫째 아이를 데리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다가 마침, 다문화 센터를 통해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24명의 인원으로 시작했으나 점점 학생 수가 늘어 4개의 클래스로 나누어 수업을 할 정도로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제가 잘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수강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들로부터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어, 둘째 아이가 그리워졌고, 5개월이 되던 때에 필리핀으로 보냈던 딸아이를 5살이 되어서야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딸아이들과의 행복도 한 때. 남편은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컴퓨터 게임만하며, 가정에 대해서는 늘 소홀 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비가 무섭게 내리던 어느 여름날. 남편은 술에 취해서 아이들과 저를 칼로 위협했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의 결혼생활은 8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약 6개월간 두 아이와 쉼터에서 남편을 피해 숨어서 살았습니다.

쉼터에서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도, 외출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생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으나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 했습니다. 다문화센터 소개로 OO복지관에서 영어강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이들과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데려와야지’하는 생각에 눈물을 삼키며, 아이들을 다시 필리핀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영어강습을 하면서 저는 자활센터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복지관에서 하는 영어강습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복지관영어강습을 그만두고,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마침, 자활센터에는 제빵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몇 년 간 빵집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었고, 제가 빵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제빵 사업단에 참여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곳이 현재 일하고 있는,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 맛조아베이커리 사업단입니다.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제과제빵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생기게 되었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나와 비슷한 상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서로 다독여 주었고, 남편한테 받은 상처는 아물

어 갔습니다.

매일 아침 제빵매장으로 출근하면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제 업무는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사람들과 말도 잘 안 통했지만, 지금 저는 한국말도 잘하게 되었고 우리 사업단 팀워크도 좋습니다. 저의 빵을 만드는 실력이 늘면서, 담당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밀가루 계량도 하고, 버터크림도 만들고, 토핑도 만들고. 몸은 힘들지만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은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에도 도전할 생각입니다.

두 딸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에 “반젤린톨락틸라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하은”으로 개명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고, 이제 아이들과 마음편이 설 수 있는 집과 일자리가 있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점점 들었습니다.

두 딸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2018년부터 노력을 하였으나,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 매매 및 각종 범죄 연루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번번이 입국 승인이 거부 되었습니다. 자활센터를 통해 용산구에 있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자녀의 입국 문제와 관련하여 소원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올해 3월에 두 딸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큰 딸은 13살, 작은 딸은 12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열과 학습수준이 높아 학업성취도에 있어 다른 아이들을 따라 갈 수가 없어서 큰 딸, 작은 딸은 함께 초등학교 5학년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와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자활센터에서 퇴근을 하면 집에 오자마자 두 아이를 보살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방과후교실 뿐 만 아니라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면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습니다. 주한필리핀 대사관에 소원서를 보낼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게 해 주실 수 있게 도와주신 자활센터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코리안 드림. 어린 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게 해 주었던,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그리고 보석같이 예쁜 두 딸아이와 2번의 이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기까지 품어왔던 꿈과 희망.

제가 어렸을 때 교사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자활센터를 디딤돌로 삼아 다시 한번 꿈을 품어보고자 합니다. 제빵 기술을 잘 배워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빵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을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로 대화하는 키즈카페. 이 빵과 아이돌봄, 이 두 분야를 접합시킨 특성화 된 키즈카페 운영을 꿈꾸어 봅니다.

지금까지 이 곳, 저 곳에서 받았던 많은 도움. 저 또한 도움을 받으며 살아 왔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자활센터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도 제가 품었던 코리안 드림을 품을 수 있도록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도우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입 선 •



환갑을 바라보는 나에게 꿈이 찾아왔다. 마치 봄날처럼.

충북 - 이숙자

불행의 끝자락에서 고통스럽게 걸어온 삶...

나는 왜소한 소녀였으나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기계체조를 시작했다. 마루운동, 뽀름, 평균대를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재주를 넘고 공중을 나르고, 너무도 재미있었다.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방출했고 그만큼 나는 성장을 했다. 혹독한 훈련도 어렵지 않았다. 늘 즐겁고 좋았다. 정말 좋았다. 불행한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초등학교 때 시작한 운동은 전국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중학교에서는 금메달을 석권하면서 전국 유망주가 되었다. 기계체조 팀의 주장으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를 위한 공동

체를 만드는 일은 나를 많이 성장시켰다.

고3 어느 날.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불행의 그 날,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평행봉에서 신기술을 배우다가 나는 그대로 떨어졌다. 늘 부딪치고 떨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모두 그러려니 했다.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자 무서웠던 코치님이 척추뼈가 부러진 것을 모르고 마사지를 한다고 문지르고 두드렸다. 만약 지금처럼 기본 상식이 있었다면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무지함으로 인해 나의 척추뼈는 함몰되었고 하루아침에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절망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기적적으로 걸을 수는 있었지만, 약물 거부반응이 생겼고 그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내 삶이 불쌍했는지 동정심으로 맡겨진 초등학교 코치 생활을 몇 년간 했고, 심신이 무너진 나는 알코올 중독환자로 살았다.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나에게 친구는 공부의 길을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살아보려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어감에 따라 친구의 욕심이 커졌고, 공부하려는 나의 앞길을 막았다. 더 큰 절망은 암 선고를 받았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다.

거주할 곳이 없던 나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약물 거부반응으로 모든 통증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래서 대체의학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자활에서 더듬더듬...

이런 나의 반복된 좌절된 삶에 마지막 보루로 자활 문을 두드렸다. 첫 방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관한 관심을 표현하였고 다행히도 청주자활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자활마켓을 준비 중이었다. 우연으로 포장된 선물이었다.

자활마켓 유통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시작했지만, 거래처를 찾고 납품을 시작할 수 있었고, 다행히도 나는 운전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복대 까리파스 요양원을 시작으로 조금씩 확대되면서 자리를 잡아갔다. 한 달에 5~6백만 원의 수입을 끌어냈지만 나는 무거운 것을 드는 힘쓰는 일이 어려웠는데 다행히 다른 참여자가 투입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다.

EM으로 알게 된 환경문제

EM 사업을 활성화하고 싶어 하는 센터장님의 권유로 EM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청주에서 수년 전부터 EM 강사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소개받았다. EM 발효하는 방법들이 손이 많이 가다 보니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외면 받고 있다고 했다.

EM 교육을 전주시에 가서 받으면서 심각한 환경의 실태를 알게 되었다. 지구의 오염은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 내 인생이 무너졌듯이 지구도 험하게 급속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무관심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었다.

삼푸, 클렌징폼, 바디클렌징, 주방세제, 세탁세제, 청소 세제가 모두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강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알지도 못하고 돈을 지급하면서 좋다고 착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EM을 일상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고 EM 활용에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면 매출 효과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았다.

좌절이 기회로, 실패가 기술이 되는 순간!

EM 교육 전문기관에서 배운 주방세제 비책을 활용해서 상품화하고 싶었다. 500ML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 3~40분을 저어가며 점증도를 높여야 했고 재료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재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문의했지만, 자신들에게서 구매하라는 매우 냉정한 소리를 들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 한 달을 넘게 실험 연구한 것을 버려야 했다.

세탁세제는 비교적 매우 쉬웠고 재료를 구매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듯했다. 인터넷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재료들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과산화수소를 잘 섞어서 EM과 글리세린을 아주 적당히 잘 버무려 말리는 작업이 전부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탁력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배운 비결이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는 모두 상품화하기에 불가능했다. 10년을 강사 활동한 선생님조차도 상품화 생각을 하지 않았던 터라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였다. 좌절이었다. 정말 길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수산화칼륨’을 활용한 반죽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모든 정보가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온도에 어느 정도의 양을 넣어야 하고 그 재료들이 어떠한 화학적 반응 하는지 알아야 했

다. 나에게 좌절보다 더 막막함은 무지함이었다. 그래서 책을 사고 이해 못 하는 논문을 찾고 화학기호를 보고 이를 설명하는 인터넷 강의를 찾았다. 그래서 세탁세제를 중성으로 만든다고 중성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몇 달이 지났다. 여전히 세탁세제는 세정력이 없고 주방세제는 기름기를 감당해 내지 못했다.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연구할 수 없었기에 홀로 싸워야 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포항에 EM을 직접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게 되었다.

간절한 끝에서의 희망

EM 원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포항 EM 공장을 찾아갔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대순진리교 소속 공장이라고 했다. 센터장님은 가톨릭 수녀로서 기독교계에서는 이단으로 불리는 종교라 선뜻 제안하기 어려워 망설이고 있는데 흔쾌히 동반해 주셨다. 종교를 떠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서로 잘 통했고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1/3 정도의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의 좌절

을 이해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들이 수년간 실험 연구한 노트를 보여 주셨고 우리의 비방을 분석해 주셨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종교적으로 이단이라고 치부했던 이들이 수년간의 실패로 얻어진 결과를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재료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첨가되는 성분이 더 있어야 했다. 그리고 어디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마음이었고 수정된 비결로 세제를 만들었더니 모든 것이 완벽했다.

우리는 매우 두려움이 컸으나, 충북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청주 시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무료 EM 교육을 시행했다. 센터장님의 진행으로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참여하는 부분이 커졌다. 내가 처음 하는 교육 진행인 것을 알고 있는 복지사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 그렇게 60여 개 기관을 방문했다.

나는 지금 EM 강사로 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학교, 기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도 EM을 활용한 제품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 이송사업단은 EM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단으로 높은 매출액으로 자립성과급 100%를 받는 활기찬 사업단이다. 사실 모든 판매는 센터장 수녀님이 주말에 성당을 다니면서 판

매를 하고 법인 관계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스스로 자립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함께 일하는 자활참여자들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나의 꿈은 이숙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출범해서 청주지역 브랜드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성공을 하는 것이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지금 하는 모든 연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조금 더 스스로 좌절에서 일어나 길을 찾아 나서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환경을 살리는데 작은 역할을 하고자 소망한다.

• 입 선 •



좌절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

전남 - 홍미향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 한 가정을 꾸렸었고, 꿈만 같던 행복한 시간들은 언제나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지사 새옹지마라는 이야기는 행복의 단꿈에 젖은 저의 머릿속엔 없었고, 불행이 제 등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대비 없이 끝없는 어둠의 긴 터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활센터를 만나기 전까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두 아이와 알콩달콩 지내며, 6개월 된 뱃속의 새 생명의 행복을 느끼며 살던 어느 날. 평생을 함께하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태어나 처음 절망을 느꼈고, 분홍빛 예쁜 저의 행복은 빛 한줄기 들지 않는 터널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남편과 짧은 기간 내에 헤어

지고, 절망 속에서도 아이들만큼은 지켜야한다는 일념으로 정든 서울을 떠나 광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달랑 버스비만 가지고 내려온 광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제 치맛자락을 잡은 두 아이의 고사리 손이 세찬 한파에 얼지 않도록 저는 우유배달부터 신문배달, 호떡 장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린나이에 엄마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한 우리 큰아이는 그 작은 손으로 어두운 새벽에 신문배달을 하는 엄마의 손을 잡아주고, 엄마와 함께해 주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빈곤한 삶이었지만, 예쁜 셋째도 태어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제 아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고, 그 노력의 댓가로 조금이나마 목돈이 마련되어 노점이 아닌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오픈한 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지난날의 고생들이 서러워서, 앞으로 편하게 장사하며,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날들이 기뻐서 밤새 울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이 같이 울자 “엄마가 우는 건 기뻐서, 행복해서 우는 거란다”며 아이들을 달래자 눈물 가득 담긴 눈망울로 환하게 웃어주는 아이들을 보며, 또 한 번 행복과 기쁨의 눈물을 아이들 몰래 흘렸습니다.

그러나, 창업은...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처음 북새통을 이루며 잘되던 장사는 시간이 지나자 차츰 손님들이 줄어들고, 매출은 지출보다 작아져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희망인 가게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제게 돌아온 것은 회복하기 힘든 빛과 과도한 일과 스트레스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습니다. 살면서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엄마라는 행복 속에 살다가 본의 아니게 끝도 없는 절망의 늪에 빠진 저에게, 또 다시 창업이라는 행복 속에서 다시 절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행복이란 게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애초에 기대조차 없었더라면...’ 속절없는 한탄과 후회와 증오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 목숨이 제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였고, 사업에 실패하였지만,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될 제 아이들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일어서보고자 고향 강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주부로, 조그만 가게 사장으로 살았던 저는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었고, 막상 고향에 내려오기는 했지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한 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가에서 저희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수급혜택을 준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강진읍사무소 주민복지팀 직원의 도움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었고,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하는 저의 형편에 찬물, 더운물을 가릴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젊은 관계로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고, 읍·면사무소나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저는 강진지역자활센터 조청사업단에 배정되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안정된 일자리가 생겼고, 하는 일도 맘에 들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서서히 자신감이 회복되고, 사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처음 월급이란 걸 받아보니 생활은 궁핍하였으나, 일에 쫓기는 일도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는 일도 없어서 매일이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일 년을 열심히 살다보니 목돈이 생기게 되었고, 지난 광주에서의 사업 실패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세상물정 몰랐었던 시절이라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생겼습니다. 물론 자활센터에서 조금 더 근무하다 보면 자활기업으로 창업시켜준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러면 소득을 동료들과 나눠야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활센터를 나와서 생선구이 전문 백반 집을 차렸습니다. 초기자본이 부족하여 외진 곳에 식당을 차렸지만, 자활센터 직원 분들도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자주 찾아주셔서 장사가 아주 잘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팔자가 그런 것일까요? 새옹지마... 그렇게 삶의 굴곡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장사는 잘 되었지만, 생선구이라는 단일 품목인 탓에 생선 값이 올라가면 바로 가게의 적자로 이어졌고, 인구수가 적은 시골마을이다 보니 인건비는 턱없이 높아서 적자는 쌓여만 갑니다. 그렇게 저는 세 번째 인생의 실패, 두 번째 사업의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하기 싫었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또 다시 어둠과 절망의 터널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우습더군요.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6개월간의 방황을 끝내고 다시 한 번 재활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생소한 청소팀에 배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청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11개 읍·면의 공용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라 비위가 약한 저는 몇 번이나 구역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저는 빠르게 일에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아니, 저에게는 이상하게도 이 일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들은 화장실 청소라는 이름에서부터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았지

만, 저는 그런 선입견보다는 이 일에 대한 매력이 더 크게 다가와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잔고장이 많았던 화장실 수리를 담당 팀장님이 와서 고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배우다 보니 바쁘신 팀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간단한 수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인생의 실패와 쓴 경험들 속에서 처음 ‘내가 쓸모가 많은 사람이구나, 나도 이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하는 보람과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과 하면 할수록 행복한 일에 대한 결과물들은 첫눈이 쌓이듯 조금씩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강진군에서 청소가 지지분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나, 지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결과물은 서로 의지하고, 친 자매처럼 지내던 동료들과 자활기업을 창업하게 되었고, 동료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제가 청소자활기업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제가 대표가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겁도 났습니다. 두 번의 사업을 실패한 경험. 그로인한 절망과 괴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냥 회피하고, 도망도 가고 싶었습니다. 역시나, 처음부터 쉽지

는 앉았습니다. 사업단에서 그냥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던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표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직원들과 상의하여 제가 결정하여야만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활기업이 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청소하고, 하나라도 더 해주자는 제게 동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고 질타를 할 때면 솔직히 다 때려치우고 그만 두고도 싶었습니다.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네 번째 인생의 실패를, 세 번째 사업의 실패를 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엔 한결같이 불평불만으로 일관하던 동료들도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제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가족과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끔,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청소하고 관리해주던 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서 재정적으로 힘이 들 때에는 강진군과 자활센터에서 한시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해줘서 위기도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료들과 강진자활센터를 의지하며 오로지 청소에만 전념해오던 최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던 그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 다시 함께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구요...

저는 이제 기뻐도, 슬퍼도 울지 않습니다. 제 곁을 지켜주는 동료들과 사랑하는 세 아이들 그리고, 저를 지원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강진지역자활센터 직원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실패와 절망은 뭐든지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던 ‘제 스스로의 아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찾은 제 희망은 결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한 결혼도, 실패한 사업도 모두 다른 사람들의 탓이라 생각했던 제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로 희망을 찾았고, 내일의 꿈을 위해 행복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살다보면 또 다시 실패나 절망이 찾아 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니 외로움이 사라졌고, 실제로 소중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더니 실제로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저는 열심히 일하고, 제 아이들과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 가끔 찾아오는 실패와 두려움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가능하게끔 도와주신 모든 분 들께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가온누리, 자활로 세상의 중심이 되다

경기 - 이경옥

나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을 가진 가온누리 자활기업대표 이경옥이다.

2004년 5월 나와 내 두 아이의 하늘의 태양 같았던 남편의 교통사고로 지극히도 평범하고 반짝였던 내 가정이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들어섰다. 한 가정을 온전히 책임지는 가장이 된다는 것은 녹록하지 않았고 여자로서도 서러운 일들로 가득 이었지만 어느 누구에게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해받고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살지 않기 위해 무던히 버텨내었다. 철저히 내 가정과 내가 혼자 살아내야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어린 남매와 내 보조가 절실한 내 남편을 두고 직장을 다니기는 어려웠고 겨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부업 정도였다. 고정적이지 않은 수입으로 가계가 불안했던 그때 생활을 기억하면 아직 숨이 막히고 답답하기도 하다.

2011년 11월 포천의 겨울은 매년 그랬듯 남쪽 어딘가와 다르게 조금 일찍 찾아온다. 내 나이 갓 40대를 맞이하면서 초등학교인 남매와 아이들의 아빠를 집에 두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겠다는 마음먹은 어느 즈음에 포천시청과 포천지역자활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당장 내가 시장에 직접 취업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당시 자활센터의 조건부수급자로서의 자활 참여 제안에 응했다. 대신 자활제도와 자활센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다. 게이트웨이과정 중 '나에게 무엇을 바라기에 센터 실무자와 센터와 센터장, 포천시청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나와 내 삶을 걱정하고 위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다. 여러 자활근로사업단 중 운전이 가능했던 나를 필요로 했던 양곡배송사업단에 배치가 되었다. 탑차를 운전하고, 내 작은 체구와 마른 몸에 양곡(쌀포대)을 이고 지고 집집마다 배송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배송을 받은 가정의 감사 인사 하나하나에 힘이 쌓여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하고, 이 일을 사랑하는 나를 발견했다. 그렇게 나의 40대 초반 3년 꼬박을 함께한 포천지역자활센터의 양곡배송사업단은 세상을 미워하고, 내 삶을 존중하지 않았던 나를 변화시켰다.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기댈 수 있게도 하고, 일을 통해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도 했다.

내가 세상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이다. 내 가정에 웃음이 많아지며 난 하나 더 결심했다. 이 일이 정말 즐겁다면 이것으로 성공하자고!! 그래서 내 약점이던 낮은 학력을 높이고자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고 3년을 고등학생처럼 공부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하며 꿈을 키워나갔다. 졸업을 하며 자활참여 기간을 3년을 채우며 이제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2014년 양곡배송사업단에서 ‘가온누리’협동조합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던 순간!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고 내 이야기를 온전히 귀담아 들어주던 포천지역자활센터의 처음 날 상담한 팀장님과 나의 변화를 더욱 성장하도록 항상 옆에서 지지해주었던 센터장님과 그 변화를 성공으로 이끌어 준 포천시청 자활담당자가 함께였다.

처음 자활기업을 꿈꾸던 순간은 그저 꿈만 같았다. 꿈이 현실이 되게 하기위해 난 참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업계획안이라는 것을 쓰고 지우기를 무수히 반복했다. 완성된 ‘가온누리’협동조합의 창업계획안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내 꿈과 내 동료들과 내 가정의 바람이 모두 녹아 들어간 미래였고 희망이었다. 창업의 순간까지도 실감하지 못했던 자활성공의 길이 이제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난 포천시와

동두천, 연천까지 양곡배송을 도맡아 하는 자활기업의 대표이다.

지난 5년간 ‘가온누리’협동조합에는 대표인 나를 제외한 우리 포천시의 시민 중 17명의 직원이 채용되고 퇴사를 하였다. 지금은 자활센터에서 처음 참여하던 나처럼 출근을 성실히 하는 직원 7명이 2019년 현재 나와 함께 ‘가온누리’협동조합의 주인처럼 일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청소영역까지 기업의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2014년 기업의 시작과 함께 나도 지금의 기업만큼 성장하고 변화했다. 난 사이버대학을 입학하여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양곡배송을 위해 포천과 동두천 연천까지 집집마다를 알게 되며 양곡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복지사인 자활기업의 대표로 작지만 가장 필요한 지원을 하기도 한다. 따뜻한 안부인사라도 필요한 독거 어르신 가구의 경우 양곡배송 후에 5분이라도 한 달 한 번의 말벗이 되어드린다. 그 5년간의 매일이 모여 지금 우리 ‘가온누리’협동조합은 연매출 4억 가까이 달성하는 사업체가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어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었던 진심어린 지지와 지원을 갚기 위해 포천지역자활센터와 포천시의 자랑이 되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의 자활기업 창업과정의 멘토 강의를 나가며 ‘자활을 만나 지금 내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서는 사실이다. 자활에 있는 스스로를 불평하고 미워하던 나와 자활을 통해 변화와 성장과 성공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던 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이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그랬듯이. 결코 가난은 물질적인 것이 가난이 아니다. 이런 다짐과 노력들이 없어 가난한 것이다.

지금 나는 2004년부터 마라톤을 시작해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또 나와 ‘가온누리’협동조합의 앞으로가 반짝이는 매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혹여 그렇지 않은 순간이 오더라도 나에게서는 여전히 십년지기 친구이자 동료 같은 포천지역자활센터 실무자와 아낌없이 지지해주는 자활센터와 기업과 나의 성장과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포천시청이 있어 반짝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성공수기를 쓰는 내 옆에는 어엿한 성인이 된 내 딸과 아들이 이런 엄마이자 가장인 나를 엄마로, 자활기업대표로 존경해 주며 바라본다.

나는 포천시 자활로 세상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선 ‘가온누리’협동조합 대표 이경옥이다.

• 입 선 •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다

경남 - 고경희

대한민국 지도 북쪽 끝인 함경북도 청진시 평범한 집안의 2남2녀 막내로 태어나 청진조선소 간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나라의 혜택을 받으면서 좋은 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으나 19살에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직장암 진단을 받았고 엄마는 큰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정신은 돌아왔지만 신체적으로 많이 불편하여 밖으로의 출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일하고 돌아오는 나만 기다리고 있다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는 나에게 손을 내밀고 사탕을 달라는 어린 아이로 변해버린 엄마.... 나의 주머니에는 항상 사탕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다. 아마도 쉽게 놓아 버릴 수 없는 엄마의 아픔인지도 모르겠다.

나라에서는 고난의 시기라 개인이 알아서 하라며 식량 배급, 월급도 없고 떨어져 살고 있는 오빠, 언니는 각자 자기 가족들 먹고 살기

에 바빠 생활전선인 시장(장마당)에 출근도장을 찍고 나 역시 엄마를 돌봐야 하기에 가장이 되어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고 지내던 중 엄마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게 되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던 나의 모습이 안쓰럽게 보였던지 이모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말고 함께 살자고 하였다. 중국의 생활도 좋지 않은 이유가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항상 마음은 불안했다. 왜? 난 지금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언제 누가 신고해 잡힐지 모르고 길을 가다가도 공안 차를 보면 놀라서 숨고 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두렵고 무서웠으며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이고 스트레스였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TV를 통해 한국의 문화, 생활환경 등 북한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놀라며 동경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국으로 가기 위한 기회를 보던 중 브로커를 통해 여러 나라를 거쳐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으며 한국 정착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원 생활을 마칠 무렵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시기 중 하나였다. 맹장염으로 수술대에 올라 7일간 병원생활을 하고 퇴원해 2005년 경남의 작은 농촌, 도시도 아닌 작은 밀양에 정착하였다. 하나원을 퇴원하면서 받은 정착금은 브로커 비용으로 일부 주고 조금 남은

돈으로 집 계약도 하고 가전제품,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들을 가졌다. 퇴원 전 수술한 자국이 아물지 않고 실밥도 빠지 않은 상황에서 복대를 차고 적십자의 도움을 받아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북한에서 8시간 근무에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 한국에서 첫 직장의 12시간 근무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다 힘과 용기를 얻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대화하고 소통하며 어울려 지내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 새로운 곳에서의 첫 월급을 받은 날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적십자 분(고문 회장님)에게 빨간 내복을 사다드리니 한 달 동안 수고했다며 열심히 잘 살자고 고맙다고 따뜻한 정을 담은 눈빛을 보내며 계속 이야기 하신다. 마냥 잘될 것 같은 정착생활이 힘들고 외롭던 시기에 나와 같은 탈북민 남자를 만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이 살면서 꿈처럼 하늘로 날아갔다. 자유로운 세상에 왔으니 하루 종일 놀고 게임하고 3개월 일하고 다시 놀고 그렇게 반복되던 생활이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 신용카드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고 싸우는 날이 많아지고 차를 사주면 일을 잘한다는 말에 내 명의로 된 차를 뽑아 주니 일은 안하고 서

을, 부산, 남해 등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놀고만 있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일하겠지 생각했지만 돈이 없으니 남한테 빌려서 놀고 계속 빚만 늘어가며 차 할부금에 공과금, 생활비가 부족해 구직활동을 하며 취업(휴대폰 부품 조립공장)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다. 회사의 첫 출근 날, 작업실에 들어서니 반장이 소개하는데 북에서 탈북자라고 하자 그 순간 직원들은 신기한 듯 보면서도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손칼로 가공하는 일감을 주면서 실명제로 본사까지 통과 되어야 한다며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 일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정량을 초과하고 불량도 없이 계속 합격이 되어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공장의 폰 부품조립 일을 하면서 언니, 동생으로 만나 허물없이 지내면서 인정받는 나의 자리를 만들면서 새로운 인간관계, 사회생활의 안정을 찾던 나에게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이(6개월) 미지급 되면서 집단으로(30명) 퇴사하고 죽고 싶은 생각과 후회도 많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던 힘든 시기에 불행인지 희망인지 나에게 새 생명이 찾아오면서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되었다.

함께 지내던 남자와의 헤어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차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경기도에 있는 친구가 일단 아무생각 하지 말고 올

라오라고 해 찾아가니 친구도 나와 똑같은 처지였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친구는 아들, 나에게서는 귀여운 딸이 생기게 되었다. 친구의 집에서 계속 함께 사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아무데도 가지 말고 딸 첫 돌은 지나고 가라면서 원룸도 계약해주고 미안한 마음에 월세는 내가 부담한다고 말은 했지만 갖태어난 딸을 4-5시간 업고 일을 하면서 월세(40만원)는 부담 할 수 있었지만 생활비는 항상 없어 친구가 도와주곤 했다. 친구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던 시기라 귀찮고 힘든 내색하나 없이 생활비를 항상 남편 몰래 통장에 입금해주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일들이 자주 있었다.

다시 내가 살던 곳으로 내려와 문을 두드린 곳은 동사무소다.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하니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밀양지역자활센터로 한번 가보라고 권유했다. 그때는 몰랐다. 나의 인생을 바꿔 줄 곳이라는 것을... 상담 이후 며칠이 지나 전화를 받고 자활센터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어서 오라며 먼 길 온다고 수고했다며 환영해주었고 모르는 거 하나하나 상담을 받으면서 인큐베이팅 3개월 실습을 걸쳐 사업단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돈만 좇다 보니 자활센터 참여와 종료를 반복을 하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중 취업성공패키지에도 참여하여 자립을 위한 준비로 부산에 있는 봉제학원에 등록을 하고 6개월 동안 초급, 중급반을 이수하며 나의 단점 보완을 위해 컴퓨터학원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였다. 힘든 날 들이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서 공부하였으나 자격증 취득은 실패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얻은 것들이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2015년 다시 자활센터 게이트과정에 참여 하면서 요양보호사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취득을 하게 되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자활센터로 인해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자활도우미로 추천해 주었으며 기본적인 업무지만 팩스, 복사란 말도 몰라 눈동자만 돌아가던 나에게 걸으려는 엄격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실장님, 작은 실수에도 괜찮다며 하나하나 배워주는 팀장님들의 격려와 지지, 배우는 재미를 알아 갈 때 넓은 세상을 배우라고 사회복지사 공부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고 시간과 사회복지사 실습의 자리가 없어 속상해하는 나에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시고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면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2년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과 새로운 세상의 배움이 너무 좋아 상담심리학과에 편입을 하고 아쉬운 자활근로를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

공서비스 전달만 하는 복지가 아닌 마음과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남을 배려하는 다양한 소통의 인간관계를 배우는 학습이 되었고 나
누며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졸업도 몇
개월이 남아 있지만 취업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심란했던 시
기에 자활도우미로 함께 일을 하자는 실장님의 손을 잡고 일주일의
실습기간을 거쳐 일을 시작하고 배워도 끝이 없는 또 다른 기회가 나
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활참여자로 일을 하던 곳에서 자활사례관리 담당자로 계약직이
지만 참여자가 아닌 자활센터 종사자로서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역
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아직 10개월 밖에 되지 않은 초보 사회복지사로 부족한 게 많지만
참여자로 있을 때의 경험을 살려 누구보다도 더 자활에 참여하는 사
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점이라 생각하고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어두운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고 힘들었던 시기에 밝은 빛이 되도
록 인연을 맺은 자활센터가 있어 지금의 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든다. 당당한 사회복지사가 되어 항상 앞에서 자활의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갈 것이다. 풍요로운 계절에 나의 마음도 단풍의 색깔처럼

물들어 가기를 바란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조금도 싫은 내색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자활센터의 센터장님,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에게 언젠가는 보답할 길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 모든 분들에게 풍요로운 가을이 되기를...

• 입 선 •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부산 - 김종균

어슴푸레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모습은 매일 분주하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열정으로 일 할 곳이 있고, 몸을 부비며 함께할 동료들도 있다.

매일 만나는 낯선 사람들 바로 고객들과의 정감 어린 시선과 대화,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의욕으로 나를 일으키고 있다. 요즘,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참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해본다.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잠시 과거를 회상해보면 누구나 다 겪었을 지난날의 아픈 과거들, 술한 방향 속에서 감내해야 했던 좌절감과 상실감,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과 참담함이 가득했다.

그런 나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어준 것은 바로 ‘자활’이었다.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수차례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의욕과 열정이 생겨났고, 모든 것이 절실했던 나에게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사업단 명칭은 ‘운동화세탁’ 새롭게 신설된 사업단이었다. 처음엔 너무 생소하고 귀에 익숙하진 않았지만, 일단 일하는 데에 의의를 두자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 타 지역자활센터의 운동화 빨래방 사업단도 둘러보고, 몇 주간 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쳐보니 점점 흥미가 생기고 의욕도 가지게 되었다.

게이트웨이에서 인연이 되어 함께 하게 된 동료들도 이 사업단에 너무나 긍정적이었고, 도전할 가치가 있다며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였다. 그렇게 운동화세탁 사업단의 개소식이 있었고, 내 빈과 직원들의 격려로 마음이 뿌듯하고 가슴속의 무언가가 뭉클했다. 이제 마음의 준비는 끝났다.

여러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반복하던 중, 사례관리 상담을 통해 여러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 측의 여러 다양한 지원과 배려가 있었다. 운

동화세탁 업무에 필요한 1종 보통 운전면허자격과 ITQ 정보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지원과 격려 덕분에 지금은 운동화 빨래방에서 잘 참여하며 열심히 역량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나에게 있던 마음 속의 빛도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다. IMF 시절, 회사 부도와 생활고로 빛이 있었고, 장기간 동안 독촉 전화에 시달려야만 했다. 도저히 견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센터 상담을 통해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말 그대로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다. 작년 5월에 파산면책 신청하여 올해 1월에 드디어 승인완료가 되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뻛고,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웬지 모를 자신감도 솟구쳤다.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일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와 사람들과의 부대낌 속에 운동화사업단에 대한 애정이 점차 커졌고, 빈말이 아니라 정말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특히 워크샵(교육)에 참여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고 전국단위의 사업단 참여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또 색다른 느낌이었다.

자활이라면 빈곤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지난 워크샵에서 자활참여자들이 모여 의식 하는 것 없이 적극적인

로 활기차게 임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의 변화도 생겼고,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운동화는 사람의 신체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다.

나는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운동화를 세탁한다.

빛나는 역할은 아니지만, 빛나게 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은가?

비록 더럽혀지고 때 묻은 운동화를 씻어내지만, 더불어 내 마음에 산적해있던 세상적 욕망도 함께 씻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디서든지 누군가의 부름이 있으면 그들의 발품이 되어 북구 전 지역에 파근한 면허증을 앞세워 거침없이 누비고 다닐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로 바뀌어간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

나 스스로가 나에게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 입 선 •



나의 자활은 9회말 투 아웃 만루홈런~

광주 - 김두식

one스트라이크 이야기

18년 전 11월 쌀쌀한 늦가을의 기운을 타고 저의 품으로 볼이 날아왔습니다.

그 볼을 잡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만루 홈런이란 것을.. 아들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제겐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들을 보며 그렇게 제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 함께 행복한 등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과 하염없이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와 아들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와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엄마의 손이 없어서 아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항상

걱정입니다. 허나 아들은 꿈을 꺾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저에게 “아버지 저 야구선수 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면, 아들을 위한 길이라면 제 몸이 녹아내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인생이 주는 시련 앞에 멈춰 섭니다. 아들을 위해 살기로 다짐을 한 저에게 신체적으로 허약한 몸이 제 마음을 따라 주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약해서 일을 하다가 허리가 안 좋아지고 목 디스크가 생겨 내 몸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 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내가 다짐했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며 출근길을 걸어 다니며 약해진 체력을 다시 회복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1년이 지나 점점 저는 체력이 좋아 지면서 점점 일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은 내 미래를 위해 아들을 위해 저는 또 다시 노력하고 힘을 내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two스트라이크 이야기

배운 것 없고 기술도 없이 그저 그렇게 몸을 쓰며 험한 일도 마다 하지 않고 현장일도 하며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이웃 지인

이 자활센터를 소개하여 일터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사례관리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립경로를 설정하며 아들의 꿈에 열매를 맺기 위해 아들을 위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모든 이에게 시련은 견딜 만큼 준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활을 참여 하던 중 아버지께서 질병으로 쓰러져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병간호를 맡아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트라이크입니다. 힘을 내어 다시 한 번 도전을 하려는 순간 아버지의 병간호로 인하여 자활사업에 참여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중요성을 알기에 아버지를 위해 잠시만 모든 걸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은 어둡고 몸은 힘들었지만 오뚝이처럼 벌떡 일어나 제자리로 가고 저의 힘의 원동력인 아들을 생각하며 이겨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아들이 힘들어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파도에 깰여진 바위처럼, 그리고 뜨거움에 녹는 용광로처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자활에 다시 재 참여함으로써 저는 다시 나에게 날아오는 공을 잡으며 다시 한 번 더 두 손에 힘을 주고 앞을 바라 볼 수 있었습니다.

만루 이야기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꿈이 없이 살다가 어느덧 40대 중반을 훌쩍 넘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배운 것 없고 기술도 없이 한 해 한 해 그저 열심히 아버지로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의미의 끝에 자활사업단 우리밀 스토리가 보였습니다. 나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밤낮으로 현장 일을 하면서 거칠어진 내손으로 제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낯설기만 하였습니다. 마땅한 기술이 없는 제에게 센터에서는 제과 제빵 학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제과, 제빵을 배우면서 빵의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반죽을 하며 빵을 숙성시키며 부풀어 오르는 반죽을 보며 저에 꿈과 희망도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배움의 열의가 느껴졌습니다. 거친 손에서 따뜻하고 향기 좋은 빵이 만들어 졌다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었고 내가 할 수 있구나,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빵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며 내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 더욱더 열심히 빵에 대해 공부를 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여 제과 제빵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취

득하고 나니 빵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나도 이제 빵에 대한 전문가라는 마음으로 자활사업단에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키움통장을 가입하여 유지하며 국가자격증 취득을 하여 만기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열심히 일에 대한 재미를 느끼며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에서도 아들을 위해 아름다운재단 교육비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여 야구부 운동을 하는 아들의 교육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빵을 만들어 가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야구에 전념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흠련 이야기

젊은 시절 나에게 이런 기회가 빨리 왔다면 제 인생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만 더 해 봅니다.

지금은 매일 매일 출근하는 아침이 즐겁기만 합니다. 오늘은 무슨 빵을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좋아하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며 즐거운 고민에 빠져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아들이 만루 흠련을 칠 그 날을 상상하며 자활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가 도움을 받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자활을 참여하다 아버지의 병간호로 인하여 참여를 못하였고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며 우리밀스토리사업단에 참여를 할 수 있게 자립경로를 같이 이야기를 해준 사례관리팀장님, 제가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게 지원해준 사업단 팀장님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내가 받은 사랑과 지원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지금 하고 있는 야구를 열심히 해야 한다.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 할 때 옆에서 아버지와 다른 분들의 지원과 응원을 한 번 더 생각해보렴.” 그렇게 아들을 지지하며 아들을 꿈을 위해 지원해주는 아버지로 나아가고 또 제과 제빵사로서 제가 받은 관심과 응원만큼 자활사업에 열심히 참여 하려고 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제과 제빵 관련 기술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밀스토리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동료들과 한 발씩 맞추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저는 야구의 9회 말 투아웃에 만루 타자로 입장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스윙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남았습니다. 아니 힘든 공이 오면 커트 할 수 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1루부터 3루까지 밟고 홈까지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홈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응원과 박수에 화답할 수 있게 다시 한번 힘차게 스윙을 하겠습니다.

• 입 선 •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대구 - 이경환

나는 한 때 부산에서 음식학원 사업을 하며 많은 부와 명성을 거머 쥐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사업으로 성공은 했을지언정 배려가 없는 가부장적인 가장으로 일만 생각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 것 같다.

여러 번의 다툼과 성격차이로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나는 아무도 없는 경기도로 올라가 기업체와 학교 등에 급식을 납품해 주는 업체를 차렸다.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등 발품을 팔며 돌아다닌 덕에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매출도 많이 늘어 직원도 많이 채용할 수 있었다.

경기도의 여러 시군을 넘나들면서 출장뷔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승승장구 했으나 결국에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게 되었다. 빈털터리가 되어 누님이 있는 대구로 어

린 자녀 둘을 데리고 내려왔다.

누님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으나 괜찮은 일자리도 없을뿐더러 나 자신이 너무 지쳐 있었고 자신이 없었다.

많은 나날을 사람들을 원망하며 술로 지새웠는데 어린 자녀들이 눈에 들어왔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건설일용직, 공장부업 등을 닥치는 대로 하다가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러 갔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고 나서 자활센터라는 곳을 처음으로 가게 되었고 상담과 교육을 이수하고 자활센터에서 처음 배치된 곳이 행복하계사업단이었다.

냉동된 계육을 녹여서 발골한 후 순살로 재가공해 포장하는 곳이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단이라 참여자도 적었고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또 뼈를 발라야 하는 일이기에 관절에 무리가 가고 힘이 많이 드는 사업단이었다.

여름에도 항상 감기를 달고 살아야 했고 겨울에는 손에 동상이 걸릴 만큼 추워 다른 참여자들이 항상 꺼려하는 기피 1순위 사업단이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버텨 나가니 어느새 적응하고 능숙한 베테랑이 되어 있었다.

3개월 만에 사업단 반장이 되어 늘어난 사업단 참여자들을 다독여 가며 작업을 진행 했다. 사업단 참여자들이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기

도 하고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일을 이끌어 나가기가 만만치 않았다.

가끔은 작업에 대한 불만이나 나에 대한 불만으로 몸싸움을 하고 언성도 높이면서 참여자들이 사업단을 떠나는 일도 있었지만 나는 사업단 참여자 모두가 자활자립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재기를 꿈 꿀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어느덧 매출도 많이 올라 3년 6개월 만에 자활기업으로 출범할 수 있었다.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자활기업 구성원이 되어 얼마나 기뻐던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해야겠다고 다짐 해보았다. 또 그때까지는 누구누구 씨 혹은 아버님으로 불렸었는데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대표님으로 불린다는 사실도 은근히 좋았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사업단이었을 때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됐지만 자활기업의 대표가 되고 보니 기업의 매출과 거래처 응대, 직원관리 등 생각할 게 너무 많았다. 특히 한정된 물량에 대한 매출이 들어오면 업체에 대금을 갚기 바빴고 남는 수익이 거의 없어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던 중 2016년 조류독감까지 덮치면서 치킨 수요가 줄어 매출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힘든 시기였지만 나가는 지출을 줄여가며 근근이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사정을 들은 거래처에서 본인들도 사정이 어렵지만 물량을 늘려줘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자활기업을 운영해 오면서 자금의 압박을 많이 받아왔지만 그때마다 우리 직원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더 열심히 하자고 격려했고 이제는 12명의 구성원들과 자활기업 5년차를 향해 달려가는 길목에 서 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HACCP 인증도 취득하여 소비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

여전히 자활기업으로서의 한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매출이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단계로 앞으로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하는 것이 내가 자활사업을 통해 받은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겠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나 혼자가 아닌 우리 행복하게동구 자활기업의 좋은 사람들과 오래, 멀리 함께 고난도 이겨내고 좌절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를 한결같이 믿어 주고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입 선 •



자활센터와 함께 한 나의 ‘인생 3막’

부산 - 하루미

인생 1막

“더불어 잘 살자!”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함께’, ‘더불어’라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것들이 우선시 되고 있는 요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잘 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활기업을 운영해온지 7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이룸’의 대표 하루미입니다.

2019년 현재의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직원 6명을 둔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처음 자활기업을 시작하던 그때는 잘 될 것이라는 용기만 가득했을 뿐 사업에 대해 무지했던 대표였습니다.

저는 21세라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생활하던 저희 부부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채, 친정의 도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직장을 가다 말다를 반복하던 남편은 둘째를 출산할 때 즈음하여 오랜 기간 실직상태에 머무르게 되었고, 아이가 아파도 병원진료를 받을 비용조차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다보니 저는 산후우울증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이 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저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던 친한 언니가 ‘무기력하게 집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며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을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때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영도지역자활센터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첫발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줄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처음 갔던 날, 낯선 환경과 오랜만에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는 제 자신이 어색했지만, 사업담당이었던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첫 상담시간 그동안의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 콧물을 다 흘리게 되었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아픔을 씻어낸다는 인디언의 속담

처럼 평평 울며 이야기했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 다시 한 번 힘을 낼 용기가 생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인큐베이팅사업(현, 게이트웨이사업)에 참여하며 다양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자립경로를 온라인 마켓사업으로 설정하여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배웠습니다. 이후 기념품, 홍보 판촉물 사업단인 '이름타올'에 배치되어 온라인 홍보를 위해 블로그를 제작하고 상품 카달로그를 제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름타올 사업단에 기존에 참여하였던 참여자분들은 저와 연배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주로 40~50대 이신 분들이셨고, 저는 홀로 20대였습니다. 20대의 용기와 패기로 자활기업에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40~50대의 사업을 한 번 일구었다가 실패의 경험이 있으셨던 다른 참여자 분들은 조심스러워 하셔서 3년간의 사업단 참여 기간 후 몇 차례의 회의와 상담 끝에 제가 자활기업 대표로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2막

“후회하지 말자”

저의 인생 좌우명입니다.

자활기업을 처음 운영하는데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몇 년 간의 사업단 참여 경험을 통해 자신만만 했던 저였지만, 사업단에서는 하지 않았던 서류작업들과 회계관련 업무들, 직접 대표가 되어 해야 하는 일들을 접하다보니 한숨이 나오고 답답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매출은 또 어떨까요? 사업단에서 운영하던 것처럼 영업이 잘 안 되어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없으면 급여도 없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해 매출구조가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물론 자활기업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함께 참여했던 참여자분이 퇴사하게 되면서 함께 일할 식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내 마음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활기업의 이름을 달고 영업을 나가면, 고객 업체들은 장애인 관련 재활기업인 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자활기업이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지는 기업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나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까지 내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을 하는데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활기업이라고 상품의 질이나 서비스를 평가절하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사업에 대

한 욕심과 오기가 생겼습니다.

‘자활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잘 되어서 자활기업에 진출하는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어야지.’ 하루하루 포부와 결심을 되새기며 일하였습니다.

자활기업이라서 자활센터와 담당 사회복지사, 그리고 유관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아 한 고비 한 고비를 무사히 넘기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나오지 않을 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받아 직원의 급여를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사업단에서부터 자활기업으로 진출하여 현재의 사업장을 구하기까지 총 5번의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매장을 구하기 위해 담당 사회복지사와 소상공인 센터의 소장님도 함께 발에 땀이 나게 돌아다녔습니다. 또 자활센터 담당 선생님의 권유로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올해 6월에 만기 해지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가족에게도 다 터놓지 못하는 자활기업 대표자의 고충과 상처들을 자활센터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보듬어 안아 주었던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상담을 통해 이렇

다 할 대안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도 내 상황을 알아주고 함께 고민할 고마운 동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동의류와 잡화를 판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념품과 홍보 판촉물을 제작하면서 아동의류와 잡화를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처를 개설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중개상인 역할을 하다가 물품을 직접 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아 모자를 제작하였고, 특이한 모양의 모자가 이슈를 끌며 대박이 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저의 첫 제작 상품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좌우명처럼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럽긴 했지만, 이를 통해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 뒤 여성의류와 속옷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여성속옷을 제작하였는데 이 상품이 대박이 나서 지금 제가 있도록 만들어준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대박상품은 여성속옷(브라) 디자인 특허를 내게 되고 유명한 인터넷 초록창(N사)에 제 상품이 검색되고 판매가 급증하며 쫄딱 망했던 그 시절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효자상품이 되었습니다.

인생 3막

최근 고달프고 배고픈 사업체를 운영하던 시절에서 조금은 벗어나 6명의 직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표로서 성장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기쁨에 젖을 무렵, 남편이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나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렸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이제는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 같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간호와 일을 병행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였고, 자활기업 ‘이룸’도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성공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왔던 목표를 새롭게 수정하여 자활기업 ‘이룸’은 지속적으로 지역 내 경제적 소외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세상물정 모르는 장사꾼에서 진정한 사업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활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행복한 꿈을 ‘이루’는 자활기업 ‘이룸’이 되겠습니다.



자활에서 찾은 나의 꿈, 나의 일

서울 - 백단오

남편의 부도, 막막한 현실

저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사업을 하는 남편을 내조하며 집안일과 아이들 키우는 일이 전부인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이 벌어드주는 돈으로도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기에 직업이나 사회경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 실패로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고 짐은 보관창고에 맡겨진 채 가족은 흩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도로 인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남편과는 연락하기 어려웠고 딸과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어렵게 용기를 내어 상조회사에 들어가 1년을 근무했지만 남는 건 밀린 자기부담금 뿐이었습니다. 상조회사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데 이걸 채우지 못하면

저에게 빚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갖고있던 돈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제 2 금융권을 통해 상환했고 그것으로 인해 800만원의 채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회사였지만 오히려 800만원의 채무가 생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강남지역자활센터와의 만남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헤매는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보라는 지인들의 말에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수급자 자격을 받기에는 저의 상황이 맞지 않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경험이 없던 저는 자활근로사업이 무척이나 낯설었고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을 재활시키는 사업인가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제 처지를 생각하며 뭘 해도 지금보다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2018년 2월 처음 강남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시 찾은 삶의 희망

처음부터 일을 시킬 것이라던 저의 예상과 다르게 자활근로사업에서는 게이트웨이라는 상담과 교육 과정에 참여시키며 저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등을 살펴보고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나온 삶을 되돌아 보면서 위로받고지지 받으면서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게 되었고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꿈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3월 말까지 진행한 게이트웨이에서 저는 부채 문제 해결 및 가족 해체 극복 즉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당분간 자활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기술을 습득한 뒤 자활기업 창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부터 강남지역자활센터 내 행복한 집밥 사업단에 참여하며 단체식사 조리법, 메뉴구성, 장보기, 매출관리, 외부 뷔페 업무 체험, 식품위생관련 교육 수료 등 외식 사업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운영 노하우와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평균 4명의 여성 참여자들이 함께 일을 하였는데 식당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고되긴 하였지만 저와 같이 자활기업 창업을 꿈꾸는 동료들이 곁에 있었기에 어려움을 무난하게 해쳐왔습니다. 사업단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참여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총무로 선출되었고, 참여자들과 함께 자활기업 창업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센터에서도 저희들의 노력과 의지를 높이 보고 자활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광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컨설팅 공모에도 신청하고, 당시 총무였던 저를 자활촉진자 수당 대상자로 추천하여 8월부터는 자활근로급여와 최저임금 차액인 월 평균 40여만원을 매월 지원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사업단 동료들도 10월달부터는 자산형성지원사업(내일키움통장)에 참여하여 자립에 대한 목표를 보다 확고히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창업의 꿈을 실현

2019년 하반기 자활기업 창업을 목표로 2019년 2월에는 자활기업 설립에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였고, 3월부터는 함께 동업 예정이던 사업단 동료와 자활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료의 아는 지인이 운영하던 김밥집을 그만두게 되면서 동료에게 인수의사를 물어 김밥집으로 자활기업 창업을 계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인수과정이 진행되면서 강남구와 협의하는 중 너무 촉박하게 김밥집 인수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자활기업으로 창업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밥

집이 36년 전통으로 유명한 집이고 기존 고객을 다 인수하는 조건인 지라 그렇게 찾아온 기회를 저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찾아오지 않는다는 운명 같은 기회가 꼭 그 때인 것만 같아 센터와 의논 끝에 김밥 집을 인수하기로 하고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자금을 마련해 3월에 드디어 신영김밥이라는 제 명의의 김밥집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자활기업을 꿈꾸던 사업단 참여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사장님이 되었다는 설렘으로 잘 못 들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허기를 채울 김밥을 만들기 위해 김밥집에서는 꼭두새벽부터 밥을 짓고 재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사장이 되고 나서야 알았지만 나의 수고로 내 가게가 지켜지고 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은 7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날마다 즐거움이 넘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에서 창업을 꿈꾸며 근무했을 때도 보람 있었지만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기쁨을 넘어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창업을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내일키움통장 장려금과 수익금까지 받았지요.

더불어 사는 삶,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기쁨

제가 근무했던 강남지역자활센터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그 안에서 성장한 저도 상생의 가치를 조금씩이나마 실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창업한 이후 사업단에 남아있던 동료들을 제 사업장에 채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4월에 1명을 채용하여 저와 함께 했으며, 취업요건 달성으로 내일키움통장 적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단에서 창업을 함께 꿈꾸던 동료를 인턴으로 파견받아 1년 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할 계획으로 함께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속을 헤매는 암울한 상황에서 만난 지역자활센터는 저에게 창업에 대한 꿈을 갖게 하고, 교육과 상담,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목표에 대한 의지를 굳건하게 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도움으로 우연치 않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창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추가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하게 되어 더없이 보람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경제적 어려움과 무기력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그 의지만으로도 자활사업 안에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 누구보다 당신의 자립을 응원하는 지역자활 센터가 있습니다~~

• 입 선 •



내 삶의 정년 ‘(주)클린광주’

경기 - 임은애

2013년 12월 31일 (주)클린광주는 시작되었다.

나를 포함한 4명의 구성원은 함께 뜻을 모았다. 구성원 모두가 자신에게 닥쳐 온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고, 그러한 의지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이루어보자는 한마음으로 자활기업 (주)클린광주는 탄생하였다.

기업을 설립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광주시 관내 무한돌봄센터와 협약을 맺는 일이었다. 그것은 (주)클린광주라는 기업이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에 보답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기업운동을 위한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봉사활동 역시 잊지 않아야 할 일이었고 계속되어야 할 일이었다.

(주)클린광주는 청소, 소독, 방역을 하는 위생관리 전문기업으로 자활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이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던 메르스 사태에서도 나는 곳곳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기질을 발휘하여 방역을 지원하는 ‘아리엘협동조합’에 참여해 메르스 방역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였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각종 복지시설 등과 협약을 맺고 청소 및 방역 등, 시설의 위생관리를 무료로 지원하며 봉사활동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은 ‘(주)클린광주’라는 자활기업이 광주시를 대표하는 위생관리 분야의 전문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전 직원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는 기업의 목적을 광주시 전 지역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이점이 따랐고, 환경과 장소, 청결상태 등 각기 다른 현장의 여건은 나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많은 경험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쌓여진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봉사를 하다보니 기업의 수익도 나날이 증대되고, 모두의 희생과 노력이 더해져 자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자원봉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원 표창 및 사회적경제 우수상, 경기도 의회 의장상 등 많은 표창과 상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며 기업으로서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하였다.

지금의 클린광주가 있기까지 모든 순간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수급자와 차상위였던 우리는 사회취약계층으로 경제적 파산, 가정의 분리, 자존감 상실 등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끝을 알 수 없는 반복되는 삶이었고,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였다. 그렇게 굵아터진 상처는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술로 지내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일하기도 하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문제로 일하다가도 여기저기로 뛰어다녀야 했으며, 건강상 질병으로 인해 수술까지 해야 하는 등의 삶의 문제들은 주위의 동료들에게 내가 해야 할 몫까지 가중시키는 부담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서로간의 신뢰에 금이 가고 마음의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가 문제를 인지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 재무상담 기관을 연계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서로간의 신뢰를 쌓고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구성원들이 구성원을 위한 봉사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고 그렇게 ‘우리’는 클린광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주)클린광주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노력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설립당시 4명의 구성원으로 출발해서 23명까지 직원이 있었으나 거래처의 직고용 혜택으로 퇴사하고 현재는 16명으로 4배에 달하는 직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클린광주는 2013년 12월 19일, 광주시로부터 자활기업인정서를 받아 2013년 12월 31일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4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고, 소기업, 중소기업으로 등록, 여성기업 인증, 2016년 5월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2018년 12월엔 착한기업으로 인증까지 받게 되었다.

위생관리업, 소독업, 청소용품 도소매업으로 시작하였지만 사업을 하다보니 전문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업종을 추가, 저수조 물탱크 청소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용역, 드론 사업(드론방제, 드론교육, 드론 촬영), 세차사업으로 지금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클린광주는 대표가 16명이다. 6년을 함께한 구성원도, 이제 막 시작한 직원도 모두가 우리 기업 (주)클린광주를 대표한다. 기업의 대표로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노력하고 클린광주가 발전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몫을 다 해주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피로를 씻고 내일을 준비한다.

이 지면을 빌어 포기하고 절망할 수 밖에 없었던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손을 내밀어 (주)클린광주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준 광주지역자활센터와 사랑하는 나의 세 딸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꿋꿋이 믿어주고 함께 해준 (주)클린광주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입 선 •



자활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하다.

부산 - 최지호

2011년 여름 아내와 헤어졌다. 의지할 곳도 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 4살된 딸과 2살된 아들을 홀로 키우게 되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은 거의 할 수가 없었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져만 갔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산다는 건 현실 앞에선 두 다리가 아닌 하나의 다리로 걷는 것과 같았다. 다양한 일을 했지만 자녀문제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그리고 많은 애로 사항에 취직이 힘들었다. 개인 사업도 했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가정경제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생활수준을 유지 하고 Risk(위험)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일자리는 더욱 구하기가 힘들어 용역, 일용직을 전전하였다. 면접을 봐도 아이

들 문제가 걸림돌 이었고 일을 하더라도 집안일로 인한 잦은 결근으로 해고 당하는게 일상 이었다.

무기력하게 지내던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다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증상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 하였다.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빈병을 수거해서 팔아 라면으로 근근이 끼니를 해결 하였다. 이런 상황이라 우울증, 공황장애 등 복합적인 부분이 겹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희망이란 보이질 않았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쪽으로 가고 있었다.

mass communication(대중매체)에서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면 남 일 같지 않았다.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휩싸여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신이 십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수급자 신청도 자격조건이 안 돼 긴급 지원금으로 몇 달 생활 후엔 또 물과 가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냈다. 이러다 노숙 인생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걸하는 건 정말 아닌 거 같아서 일 자리를 알아 보기위해 삼 개월에 걸쳐 100군데 정도를 걸어 다니며

면접을 보았다. 현실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다.

인생을 거의 포기하며 시간만 보내다 이번에는 조건부 수급자 조건이 돼서 두 달간 교육을 받았다. 수급자유지를 하기 위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에서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다리가 정상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지만 부산진구청 여성가족과에 복지도우미로 면접을 보게 됐고 지금 근무한지 8개월 정도 됐다. 첫 달에는 굶는 게 일상 이었고 여기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었다.

어느 날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는 분과 대화를 하던 중 우연히 종자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 자격증에 대한 관련 직종이 (농업직공무원 등) 다양하다는 점이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이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계장님들 이하 같이 근무 중인 분들의 배려와 격려에 잘 적응해서 근무 중이다. 배려심과 존중 그리고 감사 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게 됐고 여성가족과 외 다른과 분들과도 나의 친화력으로 잘 지내고 있다.

새로운 경험과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한다.

최선, 열심히는 기본이고 no change, no chance(변화가 없이는 기회도 없다) 危機(위기)는 機會(기회)다 라는 의미를 깨달았다. 위기가 위기지 어떻게 기회냐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실 위기 앞에 좌절하며 무너지는 경우가 非一非再(비일비재) 하다.

나도 여러 번 넘어졌다 일어서는 반복적인 생활에 지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극단적인 생각을 할 만큼 힘든 하루 하루였다. 지옥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2년 동안의 시간이 나에겐 지옥이었다.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신의 변화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된다.

“변화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은 진리다”

자활이라 그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내다 여기서 나간다면 또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보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handicap(결점)이 있어서 더 노력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만 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 했다.

자활로 인해 인생을 다시 시작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고 아직 자립하기 위한 준비하는 단계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UNHCR,

OXFAM, Habitat 후원 외)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나는 자활로 인해 다시 기회를 얻었다.

내가 받은 것을 배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활사업을 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고 싶다.

내 남은 인생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용할 것이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없는 희망찬 사회를 만들고 싶다.

항상 느끼는 건데 생각을 글로 표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언어선택을 적절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 보다는 그냥 꾸밈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변화없는 사람은 기회가 없고, 변명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행복을 창조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자신이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입 선 •



낮선곳에서 찾은 희망의 길

경북 - 김세옥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남편은 30년 전 저를 두고 먼저 가버리고, 허리디스크와 만성 관절염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고, 딸이 결혼해 분가한 뒤 모든 의욕이 사라져 그저 나라에서 주는 생계비로 생활했습니다.

허리디스크가 너무 심해 시술만 3회를 받았으며, 관절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던 상황에 부채로 인한 생활고로 파산신청까지 한 상황이라 당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 이제 뭐하지?”

“생계비는 계속 나오는건가?”

“난 언제까지 수급자일까? 생계비가 끊기지는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부정적인 고민들로 가득한 때에 저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할 일이 없던 저는 거의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상가건물이 따로 있는데 조금 특이한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 녀 구분 없이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오후가 되면 모두 차를 나눠타고 어딘가로 떠나서는 다음날 다시 출근을 하는 그런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저 곳은 대체 뭐 하는 사무실이길래 오전에만 나와서 일하고, 다 같이 어디를 가는걸까?’하는 생각에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포항지역자활센터라고 우리같은 저소득층에게 일 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관이 있어서 지금 참여중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1인가구로

등록되어 있지만 일하느라 바쁜 딸로 인해 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인가구다 보니 생계비가 손녀까지 양육할 정도가 아니라 딸이 매월 생활비를 보내주었으나 아무래도 손녀를 학원에 보내줄 정도의 여유가 되지는 못해 언제나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월소득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던 때였는데, 이런 저에게 자활근로라는 것은 아주 큰 기회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자활센터라는 곳에 가보게 되었고, gateway라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만큼 많은 사연들을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일키움통장이라는 적금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겨 검색을 해보았더니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만원 적금을 넣는데 나라에서 10만원, 혹은 그 이상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장 담당 선생님과 사업단에 들어가면 내일키움통장 가입 상담을 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적금이 너무 가입하고 싶어 사업단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교육을 듣던 중 택배사업단에서 참여자를 구하는데 일할 의향이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았고,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일부터 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택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걱정이 되었고, gateway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마음을 줄이면서도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은 당연히 힘들었지만 사람들은 저에게 모두 친절했고,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처음이라 많이 걱정되죠?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어려운 것, 실수 투성이예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배달 경로를 몰라 헤맬 때 본인 배송이 밀리면서도 옆에서 따라 다니며 알려주고, 실수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방법도 알려주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지나치게 걱정했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민망해지기도 했습니다.

한 달을 무사히 근무하고 기다리던 통장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앞두고, 다른 참여자들에게 통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조건이 까다로워 돈을 받기가 힘들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냥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일단 담당 선생님에게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돈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게 맞았습니다. 취업을 해서 증거 서류를 내야지만 인정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취업하면 어느 직장이나 다 만들어주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업을 해야한다, 맞습니다. 창업을 해야지만 창업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활근로사업단이라 창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도 자활센터에서 다 해줍니다.

탈수급, 네 자활 참여자들은 대부분 수급자입니다. 근데 취업하고 창업하면 다 탈수급 되는 거 아닐까요?

대학교에 들어가야한다, 공부하고 싶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수급자들은 학비도 면제해주는 혜택을 받는데 하고싶으면 하는게 맞습니다.

자격증을 따야한다, 자격증은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따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에서 자격증 따라고 한 번씩 지원도 해주던데 왜 안 할까요?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 당연히 어디다 쓸 건지, 어디에 썼는지 서류 내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액이 아니라 반만 써도 된다고 하는게 어딥니까.

낼 수 있는 서류 종류도 아주 많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아~ 생각보다 할 만 하구나.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더니 저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3년 동안 뭐라도 하나는 하겠지’ 싶은 생각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금을 넣고 1년 6개월만에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을 하던 대표들이 더 이상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저와 다른 참여자 두 명에서 이 기업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기업을 맡으라고 하다니... 그것도 계속 해오던 택배 사업단이라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회사를 운영할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 싶은 마음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사업단에서 할 때보다 물량도 많고 구역도 복잡하고, 인원도 적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회사의 대표라니.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 하다보니 어느새 탈수급이 될 거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내일키움통장 지원금까지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처음 시작을 있게 해 준 택배사업단을 이렇게 운영까지 할 수 있게 도와준 자활센터 지원들에게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월급만 받는 것이 아닌 목돈마련까지 할 수 있게 도와준 통장 담당 선생님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입 선 •



81년 김현영, 새로운 출발 선에 서다

부산 - 김현영

어린나이에 일찍 부모가 되었고 세 아이와 함께라면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고 그 벽은 높았습니다. 애들 아빠와의 불화와 보증으로 인한 빚, 그로인해 집에는 차압 딱지가 붙었고,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전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었고 더 이상 살아가야 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살시도를 하였고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당장의 힘겨운 현실도 막막했지만 그 보다 더 큰 걱정은 세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TV에서 보건복지부 129 공익광고를 보게 되었고 저와 같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작정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아주신 선생님은 저의 모든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셨고 공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사हा구청 사례관리사님께서 저희집으로 방문해주셨고, 저의 힘든 이야기와 저의 상황을 들어주셨습니다. 단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닌 저와 아이들이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희망과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생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지원 주거안정을 위해서 LH 전세임대 신청까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의 생계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주셨습니다. 더불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아동급식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식사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아이들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금전적인 도움이 아닌 진심어린 도움으로 조금씩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생애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감사함 마음과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젊은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나라에 도움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일까?”, “젊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는다면 남들이 욕을 하

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때론 부끄럽기도 힘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로 생활하면 부끄럽지 않을까?” 등등의 고마움과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공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빠져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였고 제가 여기서 포기해버린다면 저를 믿어주고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편견이 어떠한더라도 제가 마음을 잡고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면 저를 믿어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찰나에 저는 근로능력있는 조건부수급자 자활대상자로 책정되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 이후 사회경력이 단절된 저로서는 다시 일 하는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하구청에서 자활사업단에 대해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하구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도우미로써 다시 한번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게된 업무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주무관님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복지도우미로서 첫발을 시작한 저의 첫 마디였습니다. 처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을 때 “내가 도움이 될까?”, “괜히 피해만 끼치면 어떻

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며,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다보니 낯설고 때론 무서웠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당 주무관님은 “선생님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무관님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 저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잘해주시는 여러분의 주무관님에게 도움이 되고자 저로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업무의 최일선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업무가 있기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며, 이는 민원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요금감면 할인 혜택, 장애인복지혜택부터 다양한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까지 열심히 공부하였고, 이를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어르신들 비롯한 민원인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 동사무소가 제일 친절해.”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주무관님들도 “우리 동에 ○○선생님 없으면 어쩔뻔 했어요.”, “○○선생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요.” 이런말을 들을때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의에 빠져 있던 저에게 길을 알려줬던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더 나아가

내가 근무하고 있는 여러 명의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저는 그렇게 점차 자신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진심어린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줬던 여러 명의 주무관님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들씩 업무를 배워가며 적응하고 있을 때, 주무관님께서 “○○선생님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도전하고 하고자 일이 있나요?”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공부가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때 주무관님이 “○○선생님.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면서 초록우산재단에서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알려주시며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IMF로 인하여 고등학교 졸업전에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일을 시작하였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뒤 지금의 우리 첫 아이 임신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학력이 좋지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식당에서 설거지·서빙 등의 단순노동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때론 “대학을 졸업했다면 다를텐데...”라는 생각도 들었으며, 언제까지 복지도우미로 일을 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아이들의 엄마로서 당당한 엄마이고 싶었고 아이들

이 나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랐기에, 복지도우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먼저 학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에 진학하였고 비단 대학교 졸업장 취득만이 아닌 자립을 위하여 회계, 세무학원을 등록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비단 취업을 위한 도구만이 아닌 저 혼자만의 도전이었습니다. 출산 등으로 인한 사회경력 단절 이외에도 학업을 포기하면서 공부와의 끈도 놓았던 저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엄마로 거듭나기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 과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목표를 정하여 최선을 다하다보니 비단 자격증 취득이 아닌 제 스스로 의지가 강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으나 다양한 분의 도움으로 저는 점차 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쪽으로의 변화입니다. 내 자신이 즐겁고 웃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웃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웃음을 잃었던 아이들도 웃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곧 고등학교에 진학할 첫째 아이는 빨리 취업해서 엄마고생을 덜어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의젓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우리 큰아들 미안하고 잘 키워서 정말 고마워!” 이런 말을

들때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생각들 만큼 행복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행복한 것이 아닌 마음에서 오는 풍요로움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얼마전까지 해도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배신감으로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나에게 도움을 주신 주무관님, 사례관리사님!

저와 우리 가족에게 웃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 고마움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마움은 자립을 잘하여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꼭 되겠습니다.



공로수기

· 최우수상 ·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한 자활을 꿈꾸며’

경기-김은정

17년차 복지공무원이지만 복지업무가 힘에 버겁고, 힘든 분들 챙겨주는 내 업무가 가진 무게만큼 내 인생도 어깨에 큰 십자가를 멘 듯 지쳐갔다.

둘째 딸 초등학교 입학시점에 잠시 휴직을 핑계로 지친 나의 삶에 시간들을 돌아보고 싶었다.

읍면동 복지공무원으로 복지대상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단편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복지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내가 문득 보였고, 그들의 삶과 가치를 복지대상자라는 틀에 묶어 두었다는 생각에 또 다른 시각으로 나를 보듯 복지대상자들을 바라보는 계기는 되었다.

재능과 개인간의 성격을 잘 살리고 상생하면서 잘 사는 광주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송글송글 맺혀갔다.

마음의 힘이었던가, ‘꿈은 이루어 진다’라는 말처럼, 지역자활센터
를 운영 관리하는 부서에 다시 복직하게 되었고, 소위 복지의 꽃이라
는 자활사업과의 인연은 우연이 아닌 그런 오랜 바람으로 맺어진 듯
했다.

복지의 꽃을 활짝 피워보리라~

2월 복직, 자활사업의 업무가 아직 미숙한 시기에 시장님께서
우리 시 경제채기기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착안하고 추진하도록 지
시하셨다. 자활생산품의 매출 저조가 문제로 제시 되었고, 그에 따른
자활생산품의 품질은 좋은 편이라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시책을
강구 하면서 “지역경제를 챙기고, 자립을 꿈꾸는 광주시 자활생산품
판매 전략 프로젝트”를 착안했다. ‘시민과 교감하는 홍보’, ‘직접 찾
아가는 홍보’, ‘지역축제를 활용한 홍보’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 활성화를 위한 나의 다양한 프로젝
트가 시작되었다.

잘 만들어진 시책에 추진력이 생명이라고 했던가? 그 시책을 실천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때 진짜 살아있는 진짜 시민을 위한 시책이 된다.

나는 홍보 전략에 주력했고, 홍보는 곧 영업사원이 되어 판매를 주
도하는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지역자활센터 자활생산품입니다. 구경하고 가세요. 한번 써 보세요. 품질은 제가 보장합니다.” 목소리가 우렁차가 나가도록 최선을 다했다.

평소에 소극적인 내가 부끄럽고 힘들고, 부담스러웠지만 행동으로 옮겨야 했다. 내가 제시한 프로젝트니까.

공무원인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하는 거야,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 축제장에 달려가고 주말을 반납해야 했고, 내 발바닥과, 목소리는 버겁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이었다.

더운 여름날, 자활사업단과 기업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지만 진심이 아닌 건성으로, 당신들 일이니깐 본인들이 더 많이 해야지 하는 마음이 어느날부터 일어났다. 소극적이고, 자신의 일이 아닌 냥 책임감 없고, 악착스럽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려고 있나? 주인은 나몰라 하고 손님인 나만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상품판매를 위해 동분서주 했다.

‘아이 짜증나, 이거 뭐야, 내가 자기들 직원으로 보이냐봐’ 맘속에서 불만이 절로 절로 터져 나왔다. 생산품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기업대표와 직원들!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왜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고생을 사서 하나?’

행사장에서 지인들을 만나면 마지못해 파우치라고 구입해 가는 모습이 선심성 자선, “뭘 자활참여자들이 만든 물건이 오죽 하겠어? 별 기대 안해”하는 눈빛이었다.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향한 나의 원망을 접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먼저 움직여 보자. 팀장님의 열정을 배워보자!” 하고 마음을 다잡고 지역축제를 활용한 홍보에 전력질주를 시작했다.

5월 광주예술제! 우리과 체육행사도 반납하고, 팀장님과 나는 지역축제장 자활생산물 코너 홍보부스로 출근했다. 나는 행사장 영업사원이 되어 아는 지인을 만나면 자활생산품을 소개하고 구매하도록 강요도 하는 등 영업사원임을 인정하고 그 자세로 임했다.

시정뉴스, 광주비전, 직원들 행정메일 등 쏟아 부었던 홍보실적들이 여기에서 발현되는 듯 지나가던 직원들도 “어머 반희담 수공예품 너무 예뻐요”하며 반응을 보여주었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오늘 나는 자활사업단 참여자고, 자활기업 대표다’라고 생각하니 불만도, 부끄러움도 없어졌다

“오늘 매출 100만원 넘어가면 소고기 먹어요. 힘냅시다, 파이팅”

나는 내가 주인마냥 힘주어 말했다. 모두에게 ‘그래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이끌어 내고 싶었다.

저녁 9시가 넘어가면서 역대 최고의 매출을 향해가고 있었다. 100만원을 넘어 245만원의 매출을 이루어 내었다.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성과였다.

‘할 수 있을까?’, ‘해도 안돼!’, ‘시청에서 우리를 알아서 도와주겠지’하던 소극적인 홍보와 판매 태도를 보이던 자활참여자들의 얼굴이 상기되고 흥분되었다. 나의 노력이 자활참여자 모든 사람들에게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살려냈고, 또 그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우리는 그날 모두 소고기를 먹었다. 서로를 믿으며, 의지하며 아주 흐뭇하게...

특히 광주시 자활기업중 “반희담”(반진고리에 희망을 담다)의 수공예 제품들은 시민들로부터 조금씩 후기와 입소문을 통하여 인지도가 생겨났다. 직원들 모두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 실력도 물건의 품질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자부심도 있다.

나는 이런 타이밍을 놓칠 수 없었다, 상반기 광주시청에서는 ‘워크온 스마트 앱’을 활용한 홍보전략을 계획했다. 4만보를 걷고 반희담 파우치를 받아가는 행사로 일단 시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이 상생의 힘인 듯하다.

직원들은 운동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주고 기업은 고비용을 들이지 않고 홍보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 수 있어 무엇보다 좋았다.

시청에서 반희담 상품에 대한 주문과 문의가 있는 날이면 마음이 심쿵했다. ‘아, 내가 정말 시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고, 꽃을 피우고 있구나’하고 말이다.

스마트 앱을 활용한 홍보는 4회 실시 했다. 반희담(자활기업)과, 포토액자(자활사업단)를 시청 직원과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250명정도 참여하였고, 매장을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들도 늘어났다.

또한 5월 ~ 10월 추진한 광주시청 자활생산품 홍보부스 운영은 지역자활센터를 알리고 관심을 유발하는 데 일조를 했다. 월 2회 수요일 (11:30~13:00) 점심시간 자활참여자들과 자립팀 직원들이 함께 자활생산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일은 기록하지 않았으나, 그 성과는 눈에 띄게 보여졌다.

시청홍보부스 운영에 있어 영업은 당연히 내 몫인데 그 영업을 쉽지 않았으나, ‘해야만 했다’. ‘보여주어야 했다’ 나의 망설임이 자활 참여자들을 더 소심하게 하고 창피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널리 알린다는 맘으로 임했다.

친한 직원들이 오면 저렴한 생산품을 선물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

둘씩 자활생산품이 집에 쌓이기 시작했다.

자활생산품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면서 직원들의 반응은 참 다양했다. 웃으며 지나가는 직원들, 리플렛을 거부하는 분, 또 판매 사원이야, 언제까지 판매하는거야?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내 마음이 기특하고 좋았다.

점심시간 운영의 목적은 홍보다. 성과가 좋은 날은 매출이 70만원을 넘을 때도 있지만 당장의 매출보다는 실과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하고 찾아보았다.

또 이루어졌다.

자치행정과 상·하반기 퇴임식 행사시 가족사진 액자제작,
문화관광과 유니폼 제작과 시정캐릭터를 활용한 머그컵 제작,
의회사무과 의회 홍보용품을 편백배게, 손가방으로 주문,
읍면동에서도 홍보물품제작으로 자활생산품의 주문이 꾸준하게 이어졌다.

을 한해 자활생산품 홍보행사는 34회 22,339천원의 매출성과를 올렸다. 시책추진을하면서 세웠던 목표금액의 3배의 성과에 모두 놀라고 기뻐다.

8월에는 자활생산물 판매에 대한 언론보도가 25개 언론사에 게시되어 다시 한번 자활생산물 판매실적과 노고를 인정받았다.

처음 시청과 소통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의지하려던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태도가 이런 매출증가로 변화가 일어났다.

행사장 참여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싫어하던 분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판매전략을 고민하고, 신상품에 대해 나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소통과 믿음이 생겼다.

이젠 'NO'라는 단어보다 'Yes'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일을 추진하는 내모습을 보면 기특하고 새로운 일을 더욱 추진하고 싶어진다.

나만의 마음만은 아니라는 걸 믿으며, “주무관님! 도와주세요! 알아봐주세요”라며 나를 찾는 자활센터 선생님들과 자활기업 대표님이 정겹고 고맙다.

고맙습니다. 책상 속 시책으로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꽃을 피우는 시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달려 와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활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복지수혜자로 머물러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당당한 지역의 주민이자,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음을 증명했고, 확인했다.

올해 “지역경제를 챙기고, 자립을 꿈꾸는 광주시 자활생산품 판매 전략 프로젝트” 성과를 토대로, 2020년에는 자활생산품 품질향상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컨설팅 및 마케팅을 자활기금으로 1,000만원 지원하여 판로 확대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창출 증가에 매진할 계획이다.

품질향상을 위해 생산품 품질표시 및 인증지원, 패키지 디자인 제작, 홍보물 디자인 개발, 온·오프라인 판로확대를 토대로 우리시 생산품을 널리 홍보하고 자활명품브랜드로 만들겠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자활을 위해, 오늘도 씩씩한 걸음으로
흐뭇한 미소를 띄우며 힘차게 걸어간다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참여자와 함께 생산품 매출 대박의 행복한
꿈을 꾸면서...

• 자활생산품 판매 현황



· 우수상 ·



자활, 그 매력에 흠뻑 빠지다.

부산 - 전민주

운명처럼! 찾아온 인생의 기회

자활사업은 내 인생 중 사회생활의 첫 시작이었다. 또한 자활사업은 내 인생에서도 기회로 시작되었다.

2015년 여름, 식품영양학과를 갓 졸업한 신입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곳저곳 서류를 넣어보고 면접 보기를 수차례, 그날도 구인공고를 보다가 자활센터의 전문인력, 계약직 영양사 구인공고를 보게 되었다.

자활센터? 자활사업? 사업단? 생소한 단어가 가득한 구인공고였지만 당시의 나는 가릴 것이 없었다. 열심히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마치 운명처럼! 지역자활센터에 채용되었다.

나는 신규 자활사업단인 다대도서관 구내식당의 전문인력 영양사

로 처음 채용되었다. 인원이 채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5명의 자활 참여자와 나, 당시 사업단 팀장까지 거의 매일 늦은 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며 사업단을 이끌었다.

신입의 패기였을까. 나는 힘든 줄도 몰랐고 일하고 있는 내 모습에 기뻐다. 열심히 했던 노력에 대한 결과일까. 점차 참여자들이 모여졌고 사업단 운영의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사업단 운영이 안정화 되고 높은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나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보상을 위해 일하지는 않았지만 기쁜 마음을 감추고 싶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참여자들도 매일 함께 고생하다 보니 어느새 더할 나위 없는 동료가 되어있었다.

나는 현장에서 참여자들과 매일 밥을 함께 먹고 대화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자연스럽게 자활사업에 대하여 배워가고 나도 사회복지사로서 자활사업을 이끌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당장은 아니지만 두송지역자활센터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다른 선생님들의 업무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었다.

내가 바로 자활성공자

2016년 초, 영양사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하였다.

강의를 듣고 쉬는 날에 맞추어 실습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고지가 보인다는 생각에 달릴 수 있었다.

그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시기가 잘 맞았던 나는 자활센터의 실무자로 당당히 입사하게 된다. 계약직이었던 사업단 전문가에서 2년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정규직 실무자로 업그레йд 한 내 모습에 나는 스스로 자활성공자라고 이야기한다.

영양사로 근무할 때의 사업단 운영 경험은 지금도 자활사업단을 담당하는 나에게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곤 한다. 영양사로 근무하던 중 참여자가 고민상담을 한 적이 있다. 본인의 미래에 대한 상담을 했고, 목표가 뚜렷한 참여자를 위하여 나는 내가 잘 알고 있는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보길 권하였다. 그 자격증을 기회로 참여자도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나아가 창업에 대한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격증 하나이지만, 이 작은 시작이 3년 후 자활기업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는 그때의 나 또한 생각하지 못하였다.

내가 나의 미래를 향해 공부하며 달리고 있을 때, 그 참여자도 본인의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었다.

나와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자활사업단을 담당하게 되었고, 나는 누구보다 현장의 상황을 잘 아는 실무자, 참여자들과 소통하는 실무자로서 역할을 해나갔다. 구내식당 사업단은 내게 떼어낼 수 없는 사업단이 되어있었으며, 자활사업단 3년 후 자활기업 창업 절차를 밟게 되었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참여자가 공동대표로 돼지국밥 자활기업을 창업하였다. 부산의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을 아이টে이션으로 선정하고, 초기 운영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18년 5월 기업연계형 자활기업 토담돼지국밥을 설립하였다.

토담돼지국밥은 지리적 특색과 기업연계형이라는 특징을 살려 부산에서 유망한 자활기업 아이টে이션으로 주목받았다. 자활기업 성공사례로 발표되고, 여러 블로그에 홍보도 이루어지는 등 여러 방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업으로 톡톡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창업의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관심을 두어야 했으며, 더 나은 운영을 위해 밤새 고민해야 했다.

가장 중요한 매장 위치 선정도 쉽지 않았다. 단기간 내 좋은 점포를 알아보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으며 노력 끝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은 점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매장 확장

공사까지 하게 되어 증축, 허가, 준공, 설비까지 챙겨가며 사업장 오픈에 몰두하였다.

나는 전혀 모르는 분야였지만, 내 앞에 닥치게 되니 배워지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활기업 창업을 위해서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자활기업 대표자 또한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매일같이 증축공사 현장에 갔고 오늘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일은 두근거렸다. 나뿐만 아니라 대표님들은 얼마나 더 떨렸을까. 꿈꾸던 첫 사업이고 완벽한 모습으로 시작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내 눈앞에서 완성되어가는 자활기업을 보면서 자활기업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 되었다.

2018년 5월 17일, 드디어 나와 모두의 열정을 쏟아 부어 첫 오픈을 하게 되었다.

막 뜨거워지던 그 여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사골을 끓이고 고기를 삶으며 자활기업 대표님들은 나와 함께 그 해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구슬땀을 흘렸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나의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본인을 믿고, 나를 믿고

자활기업을 설립 후 참여자들은 처음하는 경영, 행정업무에 서툴렀고, 세금 납부 등의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나를 의지하는 일도 많아졌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되면 바쁜 만큼 뿌듯한 마음도 컸지만 혹시나 조금 매출이 덜 한날에는 금세 걱정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럴 때마다 대표님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야 했다. 담당자인 나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나를 믿고 어려운 결심을 해서 창업에까지 도전한 참여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긍정적이어야 했고 잘 될 거라고 믿어야 했다.

대표님들을 응원하면서 나는 또 다른 홍보방법을 생각했다.

때마침 주변에 새로운 노인복지관이 개관하게 되었고, 지역의 주민들이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며 복지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있었다. 복지관과 연계하여 음식을 나누기로 하였고, 매달 어르신들의 생신잔치에 맞추어 돼지국밥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복지관에서도 큰 후원을 받게 되어 좋았으며, 국밥집 또한 ‘우리 동네 착한 가게’ 현판을 받아 걸어두어 주민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대표님들은 처음에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걱정을 보였으나,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고 나누는 만큼 돌아오는 행복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자활기업을 창업 후 1년 6개월이 훌쩍 지났다. 그 사이 대표자가 변경되고 당장 주말 근무자가 핑크를 내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일처럼 국밥집으로 뛰어가서 참여자들을 돌려하고 힘을 보태주었다.

국밥집으로 뛰어가서 바쁠 때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여낸다.

누군가는 이야기한다. 자활기업으로 창업했으면 대표님들이 스스로 하셔야 한다고.. 나는 그들을 위해 당장의 자립자활이 아닌 멀리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업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 지원, 나아가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까지. 나는 담당자로서 그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는 중이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선뜻 나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고 싶다.

10년 뒤의 나에게

자활사업과 처음 만난 지 4년, 본격적으로 자활사업을 담당한 지

는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나는 햇병아리다. 10년 뒤의 나는 여전히 자활사업장에 흠뻑 빠져있을 것이다. 지금의 실장님처럼.^^

지금 내가 했던 일보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두렵거나 걱정되지 않는다.

나는 비록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자활사업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내 첫 직장, 내 첫 동료들, 열정으로 일귀낸 첫 사업장.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고 지금 나를 만들어준 것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10년 뒤의 나에게. 오늘 하루도 그들과 함께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 우수상 ·



삶에 대한 희망으로 꿈꾸는 자활 춤추는 세상을 그리며...

경기 - 김미선

자활센터의 초석을 다지다.

19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로 대량실업, 가족해체, 노숙자증가, 빈부격차 심화 등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여주는 그 당시 복지환경이 매우 척박하여 복지기관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때였다. 본인은 당시 국가보조금 없이 운영되는 순수 민간단체인 (사)여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간사로 근무하였다. 여주 관내의 소외계층을 위해 대상별로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팩스를 받았다. 팩스의 내용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공모사업 신청 내용이

었다. 마침 2018년 6월에 퇴임하신 전 센터장님이 그 당시 비상근 사무총장으로 근무할 때였는데, 팩스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취약계층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는데, 이 공모사업을 지정받는다면 더 많은 취약계층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서둘러 신청하게 되었다. 당시 사무총장님과 본인이 중심이 되어 여주지역의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드디어 2001년 12월 31자로 보건복지부 제159호로 여주자활후견을 지정받게 되었다.

이후 (사)여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여주지역자활센터로 옮겨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재활용사업단을 시작으로 자활사업을 확대하다.

2002년 지역의 한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로 후원받은 이월상품 의류 1톤 물량을 자활후견기관으로 기부해 주셨다. 당시 재활용사업단의 참여주민들은 이월상품의류를 팔아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매장 내에 예쁘게 진열을 하면서 상품가치를 올리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 홍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여주민들의 근로 의욕과 꿈틀거리는 희망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수년 전 이월상품인데도 소문을 듣고 고객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1톤 물

량의 의류는 밤늦게까지 며칠을 수고한 만큼 입소문을 타고 고객들이 줄을 서서 구매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여주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천·양평·서울에서까지 지역을 초월하여 의류구입을 위해 여주자활후견기관을 찾아오고 있었다.

점점 늘어난 고객들은 남아있는 옷이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주문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고, 고객들의 요구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후원받은 물품이라서 거래하는 업체도 없는데 고민을 하다 의류에 붙어있는 상품을 보고 의류취급 본사인 서울로 무작정 찾아가서 운영총책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을 찾아뵙고 기관의 사연을 말씀드렸더니 한 달 안에 물건 값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월상품 모두 다 (약 5,000점 정도) 아주 저가에 내어주셨다.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의류판매 사업을 통해 참여주민들의 근로의욕이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 졌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었는지. 또한 무작정 상표만 보고 본사로 찾아간 저를 내치지 않고 기회를 준 기업은 또 얼마나 감사하던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좌우를 돌아 볼 여유도 없이 직진만 했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모든 상황이 너무 감사할 뿐이었다.

이렇게 기업에서 저가로 구입한 의류를 열심히 팔아 약속한 한 달

안에 구매가격 원가(1,000만원)은 모두 지불하였고, 남은 제품으로 열심히 수익을 내어 열악한 근로사업단의 기반을 세우는데 쓰여졌으며, 참여주민들에게는 활력이 넘치는 근로의 기회와 작업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주민 중 내 점포(아동복)를 꿈꾸는 주민에게는 재활용사업단의 자활근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자활근로사업 종료 후 아동복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해 주었다.

초창기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사업이 지속되어야 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참여주민들에게 희망과 미션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은 늘 안고 있었지만, 재활용사업단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했다.

자활정책은 시들어가는 화초에 물을 공급하여 각양각색의 꽃이 다시 살아나 모두에게 미소와 행복을 안겨주는 희망우체국이라고 말하고 싶다.

간병사업단을 통해 자활을 꽃피우다.

2002년 여주자활후견기관 근로사업단의 꽃은 단연 간병사업단이었다. 설립 초기에 간병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기관으로 전문강사님을 모시고 간병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자활센터 참여 주민들과 여

주지역에서 취업을 원하는 지역 시민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대한 간병사협회로부터 간병사자격증을 발급받아 지역 내 병원으로 간병사를 파견하는 간병사 양성기관으로 자리잡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자활센터에서는 거시적 목적으로 간병사업을 확대하였다. 공익형 무료간병사업으로는 여주지역의 독거 및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진출을 위한 간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병원 2곳과 계약을 체결하여 유료간병사업을 실시하며 일자리 창출의 장을 확보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2004년 간병사업단 「여주사랑 조은간병」은 ○○병원과 간병사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사 교육과 관리는 물론이고 병원에 좋은 영향을 주기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 하지만 병원과 계약을 맺고 근무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당시 총 150병상의 병원에 간병사 1인이 7명의 환자를 케어하며, 총 22명의 참여주민이 간병사로 2교대 근무를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참여주민의 예고 없는 휴무와 결근, 조퇴, 특히 주말의 갑작스런 결근으로 대체근무가 정해지지 않을 때는 자격증을 갖춘 간병사를 바로 투입시키기 위해 담당자인 본인이 사방으로 연락하여 근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식품이나 공산품이 떨어지면 마트에 가서 신속하게 구입하여 비치해 놓지만 간병사들이 근무가 어렵게 될 상황이 발생되면 많이 힘들었다. 당시 간병사 관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체중이 엄청나게 줄기도 하였다. 그래도 참여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병원측과 원활한 관계를 맺는 일에 열정과 정성을 다했다. 이렇게 초창기에 관계를 잘 맺은 모 병원의 간호부장님은 현재 여주지역자활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함께 해주시며 자활센터참여주민들을 위한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자활에 성공하다.

현재까지 다수의 요양보호사와 8명의 간호조무사를 배출하여 경기도내 노인병원, 한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등으로 전문직으로 취업연계하여 탈수급을 시키는데 노력하였다.

8명의 간호조무사중 2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중 최○○씨는 자활근로참여시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었다. 당시 학력에 비해 똑똑하고 근로의지도 뛰어나서 단순히 근로사업단에서 일을 하기에 안타까움이 있었다. 여러 차례 상담을 해 본 결과 본인도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생계곤란으로 공부를 할 엄두

를 내지 않고 있던 터라 수차례 설득 끝에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격하고, 고교졸업장을 딴 후 간호조무사 시험까지 합격하여 지역 내 병원에 취업하게 되었다. 지금은 수원지역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며 자활센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가끔 분기별로 기관을 방문하여 서로 반가움을 나누고 있다.

또 한명의 참여주민인 김○○씨는 서울에서 30평넘는 아파트에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아주 친한 언니에게 사기를 당해 집도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이 딸과 여주에 있는 한부모가족시설에 시설수급자로 생활하다 생계유지를 위해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이혼과 우울증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 너무 믿었던 지인한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신뢰가 가지 않고 특히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겁부터 나서 대인관계도 어려워졌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자활근로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아무지게 해내는 모습이 인상 깊어 오랜 시간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 후 자립을 위해 간호조무사교육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처음에는 ‘주사바늘이 무서워서 절대로 못한다’고 거부하였으나 수차례 설득과 권유 끝에 간호조무사 교육에 도전하고 합격하게 되었다. 지금은 지역 내 병원에 취업하여 딸도 훌륭하게 키우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참여주민들이 자활센터를 종결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20년의 시간을 자활센터에 투자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물론 아쉬움과 속상함도 많지만, 이제 정년이 1년여 남짓 남아서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2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한결같이 드는 생각은 지역의 취약계층이 자활센터를 통해 꿈을 꾸고 희망을 품어 춤추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응원할 뿐이다.

· 우수상 ·



나를 성장시켜준 당신의 웃음

광주 - 김수아

나를 불태우게 했던 뜨거운 한마디!

2018년 4월 누구나 기다리던 따스한 봄날, 남들은 봄날을 기다렸지만 나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면접날이었다. 집에 있는 최대한 깔끔한 정장을 찾아 입고 방문한 상무지역자활센터, 너무 긴장을 했던 터라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김수아씨!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여러 면접관들 앞에서 가식 없이 솔직하게 대답해보자 생각했다. 첫 질문은 자활센터가 어떤 곳인지, 기관 업무와 적합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등 어느 면접에서나 볼 수 있는 질문들이었다. 준비해온 지식을 총 동원하여 대답하던 찰나 면접관께서 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 물어보셨다.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관심은 누구나 있지!”였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사회복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수백 수천 명인데…… 마치 그 한마디는 “네가 진정으로 사회복지를 해야 하는 의미를 찾으라.”는 뜻으로 들렸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 대상자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복지사가 되라는 말로 들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합격의 주문을 외웠다. 긴장 탓에 대답을 잘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다음 날 합격통보를 받았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방황으로 4년간의 대학 휴학,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사회복지사로써의 첫 직장이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불태워보자 생각했다.

첫 출근, 노트와 펜을 챙겨가며 무조건 적자, 무조건 배우자, 최선을 다하자! 생각하며 떨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첫날은 센터조직 및 업무파악을 하고 둘째 날부터 주구장창 지침 읽기, 업무 인수인계받기 등 정신없이 몇 달이 흘러갔다. 세달 쯤 지났을까? 어느 정도 나의 업무에 익숙해지고 사업단 참여자들을 만나며 하나하나 문제를 익혀나가는 등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 “수아쌤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 항상 옆에서 응원과 칭찬으로 지지해주는 팀장님들을 보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했다.

눈물이 아닌 능력으로 해결하라!

게이트웨이 담당자와 같이 몇 번의 초기상담을 진행하며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상담의 노하우를 습득해 가는 과정에서 7살의 어린 나이에 길 한복판에 버려지고 보육원 선생님께 12년간 폭력을 당한 이야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픈 부모님을 모시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청년의 이야기, 한 순간 사업이 망하고 짚은 부부싸움으로 남편에게 맞다가 이혼하게 된 한부모 여성 이야기, 남편의 사별로 혼자서 네 자녀를 키워야 하지만 우울증으로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왔던 엄마의 이야기 등, 눈물을 흘리며 사연을 풀어내는 대상자들을 보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 울고 있었다. 안타깝고 이런 상황을 만든 세상에 화가 나고, 하지만 눈물로 해결 될 일이 아닌 그런 상황들을 접하며 참여자들이 나를 믿게 만들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자! 다짐, 또 다짐하였다. 참여자들을 상담할 때 마다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가족관계? 이런 것 까지 제가 알려드려야 하나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매몰차게 대답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어떻게 다가갈까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쳤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안부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진심어린 인사를 건넸다. “식사는 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사업단 업무는 좀 괜찮으세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참여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었고, 어느새 그들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단에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 여기저기 공모사업을 찾아 열심히 제안서를 쓰다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간다. 부족한 글 솜씨에 혹여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을까 수정하고 또 수정하며 매일 읽고 쓰기를 반복했다. 처음으로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카페사업단의 청년들 이야기를 한명한명 듣고 함께 취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4명의 청년들이 각 25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타게 되었다. 학원비가 부담되었던 청년들은 본인이 원하던 분야의 학원을 등록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면접 때 입을 정장도 한 벌씩 구입할 수 있었다.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하는 등 자신감을 북돋아주었다. 이러한 과정들이 진심에 닿았는지, 너무 감사하다며 밥 한끼 하자던 친구들과 맛있는 점심을 했던 기억이 뿌듯한 기쁨으로 남아있다.

참여자들 중에선 어려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소심한 성격이나 강한 자존심 등을 이유로 표현을 못하는 분들도 있다. 두루두루 많은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

다가 '생활용품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후원행사에 100여명의 참여자에게 생필품세트를 전달해 드렸다. 작은 것이지만 나누는 일이 참여자들뿐만 아닌 스스로에게도 즐거움과 행복으로 다가왔다. 문제를 듣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자립에 방해가 되는 문제를 우선순위를 두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마치 사례관리는 서두르지 않고 참여자와 같이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 침착하게 진행하였다.

첫째,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아름다운재단', 'KT&G 복지재단' 등 장학지원사업 연계와 둘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후원처를 발굴하여 매년 중.고등학생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재지원과 교복비가 부담되는 가정을 위해 교복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딸, 아들이 이쁜 교복을 입고 학교를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자립장애물요인 중 하나인 건강회복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종합검진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진행, 치아상실로 소화불량과 자신감이 하락한 참여자를 위해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자신감을 찾고 활짝 웃을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넷째, 열악한 주거환경의 참여자들에게 집수리사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우울 및 알코올 중독으로 마음 아픈 참여자들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과 검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활화한 것은 매일 안부인사를 묻고 관심을 가지며 마음의 문을 두

드리고, 조금이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분들은 한분 한분 다 마음아프고 여유를 챙길 겨를 없이 살아왔다.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고자 각종 예술매체를 검색하고 협회나 기관을 연결하여 다양한 전시회와 연극 관람 등 문화적 측면의 자원연계를 위한 노력도 많이 하였으며, 형편이 어려워 여행을 가보지 못한 참여자들을 위해 제주도에서 행복한 추억도 만들어 주었다.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참여자들의 문제를 연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단 참여 후 본인의 변화된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개방적인 질문을 통하여 재사정을 진행하고 본인의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여 자립기반을 다지고 있다. 참여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정확한 사정이 이루어져야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때론 친구처럼 때론 가족처럼 진심으로 다가가 고민을 상담하고 참여자들의 자립기반 마련과 건강, 자녀양육, 심리정서, 주거, 부채 및 경제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며 자원을 연계하고, 다양한 교육과 자격증 취득으로 역량강화와 자신감을 더불어 주며 우리는 오늘도 ‘함께’ 자립·자활을 향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례관리

작년 겨울, 꽃다운 나이의 20대 여성 참여자가 때 묻은 빨간 패딩에 불청결한 용모로 센터를 방문하였다. 불안정한 눈빛으로 서성이던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한잔 건네며 상담을 진행하였다. 00씨는 5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의 우울증과 방치된 가정, 학교생활까지 적응하지 못해 중학교까지 겨우 졸업 한 후 시작된 방황의 삶, 경제활동을 해야 했지만 간질로 쓰러져 생활비로 인한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그렇게 빈곤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망까지, 앞이 보이지 않았다. 우울로 힘들어하던 00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지만 교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의 돌변한 성격과 폭언으로 매일을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자녀를 출산한지 10일 만에 남자친구는 집을 나갔고 망가져버린 몸과 마음, 쌓여가는 빚, 도움 받을 곳 하나 없이 암흑 속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입양 보낼까 고민도 많이 했다고.. 그러나 엄마니까! 어떻게든 살아보자 생각하여 구청을 통해 자활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게이트웨이 참여 초기, 소심한 성격과 불청결한 외모로 사람들이 어울리기를 꺼려했다. 상담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원하기 위해 두발과 옷도 깔끔하게 챙기며 서서히 청결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 1) ISP와 IAP를 함께 작성하며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본인의 강점을 찾고, 게이트 참여자들과 어울리며 점차 소심함을 극복하면서 “저도 사업단에 참여하고 싶어요!” 용기 있는 한마디를 던지는 변화를 보였다.
- 2) 사업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 탓에 여전히 낯가림은 있었지만 매일 카페에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어느새 동료들과 곧잘 어울리고 웃는 날도 많아졌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자녀의 사진도 보여주며 조잘조잘 자랑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니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졌다.
- 3) 00씨의 사업단 적응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심리적 안정 및 우울회복이 필요하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교육 및 상담을 진행,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고자 기저귀, 분유 등 자녀용품을 지원하였다.
- 4)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본인명의 월세계약,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으로 생활비로 쌓여있던 500만원의 부채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5)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동주민센터와의 협력으로 세탁기가 없어 손빨래로 고생하던 00씨에게 세탁기를 선물하였고, 그동안 너무 고생했던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는 한마디를 했다. “하리씨는 꿈이 뭐예요?” 그 질문에 솔직히 하고 싶은 것도 꿈도

없었다고 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본인을 위해 신경써주신 팀장님들, 그리고 친구와도 같은 동료들을 만나 하루하루 웃음이 늘어났다고 한다. 커피를 만드는 것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다며 “카페창업이 꿈이에요. 내년엔 바리스타자격증도 취득하고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여 목돈도 마련하고 싶어요.”라고 대답한다. 아직 창업을 성공한 건 아니지만 심리.정서적 자활을 통해 그녀의 마음과 의지는 이미 카페창업의 꿈을 이루지 않았을까 싶다.

나를 성장시켜 준 당신의 웃음

참여자들과 함께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한마디에 나는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이겨내 주셔서요!”라고 답한다. 참여자들의 따뜻한 말과 미소가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나는 그 말로 인해 두 배, 아니 세 배로 돌려주고 싶어 사회복지사로서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제 1년 6개월 차 사회복지사지만 대학원 진학, 사회복지사 1급 취득 등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며 알을 깨고 보람 된 복지의 창공을 향해 열심히 발로 뛰며 일하고 있다.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바를 더욱 더 열심히 하여 참여자들의 행복과 자립, 자활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입 선 •



‘희망의 씨앗이 꽃을 피우다’

경기 - 류현희

‘실장님 저예요~ 저 잊으신거 아니죠!!!’

출근길에 전화를 받고 바삐 걷다 반가움에 나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밝던지...

어찌 지내는지 안부를 물으니 ‘막내 쌍둥이가 학교 입학해서 학교에 치맛바람 날리고 다니며 살고 있어요~ 호호호호’

이미현씨 부부를 처음 만난 건, 이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된 2013년 5월.

나는 그때 게이트웨이 전담일을 하고 있을때다. 이 부부는 재혼가정이었으며, 두분 사이에서 7세의 딸과 2달 된 쌍둥이가 있었다. 두분 다 신용불량이었으며, 작은 월셋방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상태였다.

처음 만난 날 두분의 표정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만날 당시 남편은 50세, 부인 이미현씨는 47세로 늦둥이 쌍둥이가 있다는 말에 나는 흠칫 놀라기도 했는데 당연한 반응이라며 오히려 나를 다독거리곤, ‘이 쌍둥이 아이들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얻었고 아이들은 우리에게 보물과 다름없다’고 하시는데 난 더 이상의 의문이나 의아한 표정도 지을수가 없었다.

그렇게 두분과의 만남, 아니 아이들도 함께 키우는 만남이 시작 되었다.

남편 이동수씨가 먼저 자활근로에 참여하였고, 운전경력이 많은 이동수씨를 위해 아동급식사업단 배송부에 자리를 마련하여 사업단 진입을 하였다. 한달 후에 있었던 쌍둥이 백일잔치를 자활기업 ‘미담’에서 작은 현수막을 만들어 걸고 사업단 선생님들을 초대해 나름 성대하게 치렀고, 쌍둥이가 2돛이 되어 어린이집을 갔을 때 부인 이미현씨도 자활근로에 참여하였다.

아이들을 키우는 주거환경을 바꾸기 위해 전세임대를 신청하여 두 번만에 선정되었고, 방3개 짜리 작은 빌라를 얻어 이사하던 날은 짜장면을 시켜먹으며 함께 짐을 옮겼다. 차렵 이불을 선물했드렸는데, 그 이불을 봉투째 뜯지 않고 한쪽에 두고 아끼며 쳐다보기만 했다고 하셨을 때, 두분에게 그 이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였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두분이 재혼을 결정하며 별였던 식당일이 부도를 맞게 되며, 재산이 모두 날라가고 빚까지 생겨 두분 모두 갑자기 수급자며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웃으며 자활센터를 방문해준 것이 지금 생각해도 참 기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

두분 모두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상냥함이 몸에 배어 있어 사업단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자활근로를 해냈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연계하여, 두분 모두 2년만에 파산 면책을 받아 신용을 회복하였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던 것이 생각이 난다.

그때부터 나는 진정으로 이분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다시 평범한 삶을 살기를 기원하며, 그 분들을 돕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차에 조용히 이미현씨는 나를 찾아왔다.

‘실은 내가 중졸이에요. 무엇이 창피한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이제껏 왔는데, 나보고 자꾸 주변에서 사회복지를 해보라는 말을 하는데, 중졸자가 무엇을 하겠어요..’

초기상담시 이미현씨는 고졸에 체크를 하여 나도 그런줄 알고 있던차여서 적잖게 당황이 되었다. 늘 현명한 판단을 하고, 늘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이미현씨를 믿고 나는 어려울 수 있는 제안을 하였다.

‘아이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검정고시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이버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 전공을 하는거예요’

나는 확신이 있었다. 눈을 반짝거리며, 이미현씨는 해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장 우리 둘은 성남시에 무료로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는 청솔야간학교에 등록을 하였다. 서로를 믿고 있음을 알기에 두려움도, 걱정도, 안될거라는 마음은 1도 없었다.

2017년 이미현씨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같은 해에 이동수씨는 자활근로참여 만 5년이 되었고, 내일키움통장 만기 지급액을 받아 작은 중고트럭을 사고 평생 해와 자신있던 분야인 건설분야의 일을 도급 받아 개인창업을 하여 일을 시작하였다.(식당일은 두 번다시 쳐다보기 싫으시다며...)

지금까지 겪었던 성공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이 뒷받침된 성실함으로 1년만에 직원 5명을 둔 작지만 실패하지 않는 기업이 되었다.

2018년 12월 이미현씨도 탈수급되어 자활을 종료하였고, 내일키

음통장 만기 지급액을 받아 남편의 주요 일터인 일산으로 31평 아파트를 얻어 이사를 하였다.

이사가기 일주일 전 함께 식사를 하며, 두분과 지난 5년의 시간이 되짚어 가며 웃음꽃을 피우며 시간을 보냈다.

두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한다. ‘되짚어 보면 참 아찔해요. 나이가 50이 넘어 아이들 셋을 쪼로록 낳아 집도 절도 없이 무일푼으로 하루하루 보내던 날들이... 그때 자활센터를 만나 희망과 용기를 얻었고 비빌언덕을 얻었다’라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었다...’고...

뭉! 이런곳이 있나 싶더라. 의심없이 늘 같은 마음으로 만나주는 나도 이해가 안가더라. 나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들의 삶과 아이들의 삶이 아찔하다. 긍정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응원하며, 해보자!, 진짜 한다! 하며 부딪힌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미현씨는 사이버대 입학에 미루고 있다. 쌍둥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부르며 문을 열 수 있도록! 외롭지 않은 1학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싶단다. 대학교를 가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더라도, 일은 남편일을 도와야 한다고 한다.

일산에서는 본인이 수급자였던 것도 모르고, 자활근로를 하며 어

렵게 살았던것도 몰라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나를 봐준다면... 그래서 너무 좋단다!!

지역자활센터 실무자가 된지 벌써 9년!

돌이켜보면 성공경험보다 실패경험이 더 많다. 후배들이 가끔, ‘뭘 해보자 해도 참여주민들이 힘들어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하려 한다’고 한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다고 한다.

그때마다 나는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거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도 꽃을 피우는 것도 참여주민 몫이며 그분들의 힘이다.

그러니 지치지 말자! 지금 당장 그 꽃을, 그 싹을 못본다해도 훗날 언젠고 또 힘들 때 우리가 부지런히 뿌린 씨앗이 꿈틀거리며 싹을 틔울 수 있다’고 용기를 준다.

이미현씨가 전화를 끊을 무렵, 전화 너머 멀리서 쌍둥이들이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나는 함께 인사하며 출근을 서두른다.

나는 또 센터를 찾아오는 참여주민들을 만나며 열심히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한걸음

부산 - 안태규

가입자 하명인(가명)과의 첫 상담을 진행하다.

2017년 12월부터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나에게 주어진 업무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자’였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를 이전부터 들어왔던 나에게 있어 낯설지 않은 제도였으나, 업무 면에서는 생소한 면이 많았다. 처음 접하는 업무를 익히기 위해 지침을 찾아보기도 하며,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업무들을 찾아보면서 익혀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내가 파악한 중요한 업무는 대상자의 본인적립금 납입 안내였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매월 22일 이전에 본인적립금 납입이 이루어져야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이 적립되므로, 본인적립금 납입은 대상자에게 필수적이었다. 나는 대상자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

각하여 본인적립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들과의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다.

2017년 12월 18일, 본인적립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 하○○과 처음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내일키움통장 담당자입니다. 본인적립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혹시 자동이체로 매월 납입하고 있으신가요?’라고 가입자에게 물었다. 가입자는 ‘매월 20일에 납입하고 있어요. 아직 자동이체 일자가 아니지만 통장 한 번 확인해볼게요.’라고 대답하였다. 가입자에게 ‘통장을 한 번 확인해보시고 20일 이후에 부득이하게 입금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내일키움통장으로 바로 납입하면 됩니다. 내일키움통장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센터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더니, 가입자는 ‘센터에 새로 오신 팀장님이 납입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이야기해주셔서 한 번 더 확인해보게 되네요.’라고 대답하였다. 가입자 하○○과의 첫 만남 그리고 첫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가입자와의 첫 상담을 시작으로 매월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라포 형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4번째 자립역량교육에 참석하다.

내일키움통장 대상자들은 3년간 총 4회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입자는 내일키움통장을 가입한 2016년부터 매해 진행되는 자립역량교육에 참여하였고, 총3회의 교육을 이수한 상황이었다.

2018년 5월 12일 진행되었던 자립역량교육에 가입자는 참석하여 자신의 4번째 교육을 이수하였다. 자립역량교육이 마무리된 이후, 가입자와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가입자는 ‘재무 및 자산 관리 등 자신에게 유익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4번째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되어 너무 아쉽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를 충족한 위한 조건들을 전달하고, 영수증 증빙을 해야 된다고 하니 이 부분과 관련되어 준비를 해야겠네요.’라고 하였다.

가입자에게 ‘4번째 교육은 마무리되었으나, 자립역량교육은 다음에도 진행되니 교육을 희망하시면 참석하셔도 됩니다.’라고 설명하였고, ‘지급해지 요건은 지금 고민하는 자활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어,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가입자와의 상담을 마무리하였다.

가입자가 자활기업 창업을 확정짓다.

2017년 12월부터 시작된 가입자와의 상담의 공통 주제는 ‘자활기업 창업’에 대한 고민이었다. 자활기업 창업을 나가게 되면, 자신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앞으로의 생활이 이전과 변화된다는 두려움이 병행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입자의 고민을 상담 가운데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지하여 창업에 대한 의사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입자의 결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8월 21일, 가입자 및 사업단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였다. 사전에 가입자와의 전화에서 ‘자활기업 창업’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확정짓게 되어, 상담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였다. 가입자는 ‘오랜 기간을 고민하고 결정짓지 못하였는데, 생각해보니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자활기업 창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로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가입자의 의견을 들은 사업단 담당자는 사전에 의견을 밝혔던 다른 가입자들과 함께 ‘자활기업 창업’을 확정짓고 준비하기로 하였다.

오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자활기업 창업’을 지지하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결정이 흔들리지 않게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통해 ‘자활기업 창업’ 준비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2019년 1월, 청소 자활기업 창업을 하다.

2019년 1월, 청소 자활기업 창업을 하였다. 자활사업단이 아닌 자활기업 대표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시작의 한걸음 앞장서 나아가게 되었다.

자활기업 창업은 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며, 창업 후에는 3개월 간 근무를 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이루어져야 지급해지를 할 수 있다. 가입자에게 해당 내용과 관련되어 한번 더 설명하였고 가입자의 지급해지는 3개월 뒤에 진행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가입자가 준비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입자는 ‘해지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들도 팀장님의 설명에 맞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2019년 4월, 창업 후 3개월 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를 진행하다.

2019년 4월, 자활기업 창업한 지 3개월이 되었다. 가입자는 증빙

서류 준비가 완료되어, 센터에 방문하여 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았던 가입자의 모습은 앞서 진행하였던 상담 때보다도 기쁨에 넘쳐보였고 마음의 짐을 덜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볼 수 있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기간동안 단 한번의 미납도 없이 꾸준하게 납입하였고,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지급해지’라는 결실을 맺은 것을 가입자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다. 가입자는 ‘지급해지가 확정되면서 자녀가 다니고 싶었던 학원들을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자녀에게 학원 보내지 못해 너무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 기회로 이를 수 있게 되어 마음의 짐을 덜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내일키움통장,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한걸음

내일키움통장,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 통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한 걸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입자에게는 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가입자의 마음 속 짐을 털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가입자와의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팀장님께서 자활기업 창업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통장을 지급해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어서

이렇게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 말에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로서의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며, 앞으로 어떤 역할로서 통장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가입자와 함께 발맞춰나가며 가입자의 말과 행동에 나의 눈과 귀를 집중하면서, 가입자가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마지막에는 지급해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도 가입자의 내일을 키워나가기 위해 가입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 입 선 •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드리겠습니다.”

대구 - 임미애

몇 해 전 타지역 자활센터에 근무하면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경험하고 ‘사례관리자’라는 역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수성지역자활센터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던 분야를 맡게 되어 의지에 불타오르던 저는 실전에서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례관리 담당자’는 사회복지 분야 전반의 자원을 알고 있어야 하고 참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보이지 않는 참여자의 숨은 마음까지 알아차리고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참여자의 자활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단순히 상담과정에서 듣고 종결하는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스스로 어떤일을 할 수 있기까지 다양한 경험과 자원을 연계해 주는 일이 쉽지않은 일입니다.

참여자 본인의 욕구와 그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변의 기대, 담당자가 모든걸 해주길 바라는 참여자의 의존성이 때론 저를 힘들게도 했습니다. 깜깜한 밤 불빛 하나 없는 시커먼 바다위에 홀로 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분들의 자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분들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수없이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참여자의 욕구와 이상은 높았고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능력에도 한계를 느끼던 어느 여름날, 자활근로에 참여하겠다는 4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여기 오면 일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참여자에게는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두 아이가 있었고, 게이트웨이 과정에 아이와 함께 참여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참여자가 게이트웨이에 참여하는 동안 센터 교육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조용히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게이트웨이에서 기본면접지, 자활사정지, IAP(개인별자립경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아 3, 4년 후 조그마한 가게를 창업하는 목표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 그것을 바탕으로 ISP(개인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하며 본인의 욕구에도 부합될 수 있는 방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만들기를 좋아하고 손재주가 있던 참여자를 『빵순이 빵집』(자활기업)에 실습을 연계하고 본인의 참여도와 적성을 파악하고 실습에 대한 피드백을 수시로 주고받았습니다. 게이트웨이 과정이 끝날 무렵, 『빵순이 빵집』 집에 취업을 희망하였고 기업에서도 고용 의사가 있어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첫 출근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꼬박 8시간을 서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다 보니 주 고객들 또한 술 취해 난동을 부리는 손님, 빵을 사고도 빵값을 지불 하지 않는 손님, 노숙인 등 손님 응대에 대한 어려움,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형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대로 놔두었다간 참여자의 상황이 위태롭다고 판단되어 자활기업대표와 직원들이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함께 운영상의 문제를 짚어보고, 운영규칙과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분기별 평가회

와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매출성장과도 연결이 되어 자립성과금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 어느덧 일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3, 4년 후 창업을 하고 싶은데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요?”

“한부모를 위한 복지재단에서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본인 자본금도 필요하니 자산형성지원제도인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니, 당장 가입해야겠어요.”

그렇게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해 성실히 본인부담금을 저축하고 있고 근로소득장려금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향후 창업 시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꾸준히 사례관리 중이며 창업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들이 자활근로 안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그들의 경험을 존중해주고 참여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찾아 제거해 줌으로써 참여를 독려해주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활근로 사례관리가 제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삶 또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해줘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참여자와 더 어려운 숙제들을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지역자활센터에 오는 참여자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이트웨이 사례관리자’라는 자리는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매력적인 자리임을 확신합니다.

〈지역자활센터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급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 종합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249개의 지역자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주세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129)

전국 자활 지원기관

기관명	주 소	연락처
부산강서구지역자활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811번가길 30 2층	051-973-6998
부산금정지역자활센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49 제일빌딩 5층(남산동)	051-508-2163
부산기장지역자활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88번길 27 2층	051-724-3457
부산남구지역자활센터	부산 남구 수영로 250번길 6 3층	051-638-7212
부산동구지역자활센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84 영진빌딩 3층(초량동)	051-462-1466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부산 동래구 온천장로 11, 4층(온천동, 관성빌딩)	051-529-8922
부산진지역자활센터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58번길 143(전포동)	051-816-9633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부산 북구 만덕3로 13, 2층(만덕동)	051-341-9841
부산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부산 북구 학사로 297, 성원빌딩 2층	051-365-0045
부산사상지역자활센터	부산 사상구 모라로 110번길 47 대양빌딩 4층	051-301-8681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부산 사하구 다대낙조2길 15(다대동, 도시물운대아파트상가 2층)	051-263-6697
부산사하두승지역자활센터	부산 사하구 다대로 502 5층(다대동, 경동빌딩)	051-261-0750
부산서구지역자활센터	부산 서구 대영로 45번길 102 3층	051-253-1957
부산수영지역자활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775 영화빌딩 3층	051-757-4034
부산연제지역자활센터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 58205호(연산동, 웨미리타운)	051-852-8219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	부산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40(동삼2지구상가 202호)	051-403-4595
부산중구지역자활센터	부산 중구 대청로 116번길 8 중앙성당 별관	051-463-4584
부산해운대지역자활센터	부산 해운대구 윗반송로 64(반송동, kt빌딩)	051-543-0015
충북괴산지역자활센터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괴강로 15 2층	043-832-1008
충북단양지역자활센터	충북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83 3층	043-421-6911
충북보은지역자활센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중초길 4 중초리 408-1	043-543-2033
충북영동지역자활센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186	043-745-8481
충북옥천지역자활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26 다목적회관 3층	043-731-1549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83, 2층	043-873-8898
충북제천지역자활센터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43(영천동)	043-648-2983
충북증평지역자활센터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동길 8 3층	043-838-9230
충북진천지역자활센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10(종합사회복지관 2층)	043-533-5981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9, 도암빌딩 3층	043-269-5720
충북청주시지역자활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83번길 35, 2층	043-288-1432
충북충주지역자활센터	충북 충주시 예성로 208	043-855-2800

기관명	주 소	연락처
충남공주지역자활센터	충남 공주시 신기동길 48-8(신기동)	041-857-0029
충남금산지역자활센터	충남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로 112	041-752-7942
충남논산지역자활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360번길 7-1	041-734-1377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	충남 당진시 시청1로 38 당진종합복지타운 4층	041-360-3220
충남보령지역자활센터	충남 보령시 원동1길 95 보령복지센터 2층	041-936-8509
충남부여지역자활센터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송서로 128-3	041-832-0811
충남서산지역자활센터	충남 서산시 효행6길 19	041-668-2304
충남서천지역자활센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1번길 12 2층	041-953-2091
충남아산시지역자활센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103호	041-546-1814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66 3층	041-332-5402
충남천안지역자활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미라8길 3 4층(쌍용동)	041-552-0350
충남청양지역자활센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8길 9, 2층	041-942-4526
충남태안지역자활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2 2층	041-674-1378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2번길 41-8 보훈회관 1층	041-631-5815
세종지역자활센터	세종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044-868-1004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	세종 도움1로 116, 종촌종합복지센터 내	044-865-7871
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	대구 남구 명덕로68길 43 희망드림타운 2층	053-476-1991
대구달서구지역자활센터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77 이곡2동주민센터 3층	053-585-6612
대구달성지역자활센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화로 9 2층	053-639-6971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대구 동구 해동로 204 청곡빌딩 2층	053-986-0826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	대구 북구 침산남로 49 2층	053-952-8592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377길 12-10	053-555-4848
대구수성구지역자활센터	대구 수성구 범안로 81(범물동, 입주민지원센터 2층)	053-767-0408
대구중구지역자활센터	대구 중구 남산로7길 75 지하1호	053-256-3083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3	053-644-1080
대전대덕구지역자활센터	대전 대덕구 대화1길 62 주민복지회관 2층	042-628-9723
대전동구지역자활센터	대전 동구 대전로 731 201호	042-622-8890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대전 서구 계룡로 676(용문동,주원빌딩 502호)	042-527-1654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대전 중구 대흥로 175번길 16, 2층(대흥동)	042-221-4021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 성우빌딩 5층	042-824-1982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	경북 경산시 장림길 19 (임당동 300)	053-811-5444
경북경주지역자활센터	경북 경주시 태종로 791번길 6	054-771-6694

기관명	주 소	연락처
경북고령지역자활센터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 3층	054-955-8322
경북구미지역자활센터	경상 구미시 구미중앙로3길 12-14 1층	054-455-2134
경북군위지역자활센터	경북 군위군 군위를 동서1길 2 2층	054-383-6900
경북김천지역자활센터	경북 김천시 강변로 36 2층	054-435-8985
경북문경지역자활센터	경북 문경시 흥덕동 호서로 196	054-554-0408
경북봉화지역자활센터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94 2층	054-672-4185
경북상주지역자활센터	경북 상주시 중앙로 146 (남성동)	054-536-6580
경북성주지역자활센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 2층	054-931-1370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경북 안동시 옥동1길 29	054-841-5120
경북영덕지역자활센터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27-5	054-734-5883
경북영주지역자활센터	경북 영주시 번영로 181번길 31 3층	054-635-5030
경북영천지역자활센터	경북 영천시 중앙동2길 86 1층	054-337-1919
경북예천지역자활센터	경북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44	054-655-8219
경북울진지역자활센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11 2층	054-781-4555
경북칠곡지역자활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73	054-971-3335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로 35 미문빌딩 3층	054-249-0866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 69	054-252-4471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6	054-833-1225
경기고양지역자활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 3로 75(덕이동)	031-968-8378
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	경기 광명시 오리로 643 석산빌딩 502호	02-2612-0453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경기 광주시 중앙로 1972층	031-767-0768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청과물동 2층 52209호	031-569-1919
경기군포지역자활센터	경기 군포시 금정로 25 신호빌딩 5층	031-427-0555
경기김포지역자활센터	경기 김포시 북변중로 65번길 4-8	031-981-1651
경기남양주지역자활센터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프라자 4층	031-595-9886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경기 부천시 장말로 376 성보빌딩 6층	032-323-9946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477 경용빌딩 4층	032-349-2355
경기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03번길 8 원원프라자 403호	032-654-7399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번길	031-741-0120
경기성남남지역자활센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09 2층	031-748-3500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33 4층(인계동, LD그린토피아)	031-232-0179
경기수원우만지역자활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01 세민빌딩 8층	031-231-9208

기관명	주 소	연락처
경기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74 6층(영화동 거영빌딩)	031-257-3991
경기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경기 시흥시 봉우재로23번안길 9-5 1층	031-497-7151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33 디아망타운 702호	031-313-2733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 32 조강프라자 505호	031-438-9506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95 3층	031-493-9844
경기안양지역자활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3 별관 3층	031-443-1594
경기양주지역자활센터	경기 양주시 덕정5길 14-3	031-856-0221
경기양평지역자활센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37번길 18 4층	031-775-0454
경기여주지역자활센터	경기 여주시 세종로 319-1 사마리안하우스(2층)	031-881-0871
경기오산지역자활센터	경기 오산시 궤리사로46번길 18 다음빌 2층	031-375-3322
경기용인지역자활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2, 3층	031-8005-8038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38 2층	031-879-2733
경기파주지역자활센터	경기 파주시 가나말로 143 202호	031-949-3620
경기평택지역자활센터	경기 평택시 자유로 8번길 31 3층	031-658-4788
경기포천지역자활센터	경기 중앙로 51-1 정은빌딩 2층	031-532-1978
경기하남지역자활센터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412 (하산곡동) 2층	031-791-3660
경기화성지역자활센터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내 16게이트	031-354-1129
경기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산학협력관 508호	031-672-5077
경기이천지역자활센터	경기 이천시 영창로 163번길 19	031-631-0199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	광주 광산구 평동로 1109	062-941-1633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광주 남구 용대로 91 3층	062-676-5086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광주 동구 금남로 2312층	062-228-1410
광주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광주 북구 서하로 222 3층(오치동)	062-576-6970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광주 북구 태봉로 67, 2층(신안동)	062-524-0377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광주 북구 설죽로 258 3층	062-515-5517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광주 서구 천변좌로 110 한가족생활관 3층	062-351-3029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광주 서구 월산로 170 2층	062-375-0384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광주 광산구 우산로 85번길 25	062-941-5051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	경남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1길 109	055-688-5890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창동로 71-1 2층	055-942-9978
경남고성지역자활센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56번길 36	055-674-2001
경남김해지역자활센터	경남 김해시 분성로 194번길 58(외동)	055-329-6370

기관명	주 소	연락처
경남남해지역자활센터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35-10	055-864-6672
경남마산지역자활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293-1 2층	055-251-0650
경남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7길 51 3층	055-247-7045
경남밀양지역자활센터	경남 밀양시 가곡 6길 25	055-356-9867
경남사천지역자활센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317-13	055-855-0422
경남산청지역자활센터	경남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 84 통합보훈회관1층	055-973-8267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경남 양산시 북안북 2길 6 효정빌딩 3층	055-387-3147
경남진주지역자활센터	경남 진주시 도동천로 184번길 11 1층	055-747-0179
경남진해지역자활센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호	055-540-0216
경남창녕지역자활센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서재골로 7	055-532-0624
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163-1(두대동, 창원종합운동장)	055-275-2983
경남통영지역자활센터	경남 통영시 여항로 165-14 상가 2층	055-649-1649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	경남 하동군 하동읍 청년회관길 13	055-884-6955
경남함안지역자활센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 함안공설운동장 210	055-584-0455
경남함양지역자활센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055-963-0144
경남합천지역자활센터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1층	055-933-3227
강원강릉지역자활센터	강원 강릉시 명주로 69(교동)	033-642-4100
강원고성지역자활센터	강원 고성군 간성읍 쇠롱골길 16	033-682-9117
강원동해지역자활센터	강원 동해시 발한로 211	033-535-1648
강원삼척지역자활센터	강원 삼척시 오십천로 448 2층	033-574-1658
강원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	강원 속초시 청초호반로 296 속초시사회복지회관 3층	033-636-2891
강원양양지역자활센터	강원 양양군 강현면 일출로 42	033-673-4848
강원영월지역자활센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길 6 2층	033-373-2583
강원원주지역자활센터	강원 원주시 치악로 1735번길 10(개운동)	033-765-0945
강원인제지역자활센터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52 2층	033-463-0909
강원정선지역자활센터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1로 56	033-592-4115
강원춘천지역자활센터	강원 춘천시 중앙로 131 시민복지회관 6층	033-253-4575
강원태백지역자활센터	강원 태백시 태백로 398-8	033-553-8888
강원평창지역자활센터	강원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29 1층	033-332-5432
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8길 15-23	033-442-0400
강원횡성지역자활센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49	033-345-7132
강원홍천지역자활센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로 3	033-433-6006

기관명	주 소	연락처
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	강원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5014 농업경영인회관 2층	033-452-0912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총렬사로 155	032-934-1189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1층	032-543-3370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3번길 5 아스트라빌딩 1층	032-867-8414
인천미추홀지역자활센터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93 3층	032-888-0231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	인천 남동구 만수로 12-6 3층	032-422-4318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인천 동구 동산로 41번길 22 2층	032-761-0766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인천 부평구 수변로 175 2층	032-525-1982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03 5층(십정동, 열우물어울림센터)	032-521-4561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인천 서구 원창로 76 (원창동)	032-569-1491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인천 연수구 청명로3번길 8-5	032-816-1995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인천 중구 제물량로 132-2	032-763-1988
전북고창지역자활센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 14길 19 2층	063-562-2014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신영1길 5 2층(평화동)	063-463-9731
전북군산하마음지역자활센터	전북 군산시 대학로 248 진성호내과 3층	063-446-4124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	전북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4-9005
전북남원지역자활센터	전북 남원시 금동로 3 2층	063-632-4747
전북무주지역자활센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154 2층	063-324-2710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89번지 2층	063-583-0045
전북순창지역자활센터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2길 31	063-653-0920
전북완주지역자활센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별산농원길 20	063-232-1377
전북익산지역자활센터	전북 익산시 평동로1길 12-35	063-841-1040
전북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80	063-842-1459
전북임실지역자활센터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50 삼일빌딩 3층	063-642-4840
전북장수지역자활센터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시장로 27-9 1층	063-351-7179
전북전주지역자활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68 2층	063-283-9766
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2-3 1층	063-232-8383
전북정읍지역자활센터	전북 정읍시 벚꽃로 442 2,3층	063-533-0399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75	063-432-9005
제주서귀포모름지역자활센터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312-4	064-792-8219
제주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 제주시 서사로 53 한일빌딩 3층	064-721-1280

기관명	주 소	연락처
제주서귀포일터 나눔지역자활센터	제주 서귀포시 속골로 22(호근동)	064-738-8219
제주수놓음지역자활센터	제주 제주시 서광로 241-1 영지빌딩 6층	064-722-8219
전남강진지역자활센터	전남 강진군 군동면 백금포길 7 중흥상가 2층	061-434-7002
전남광양지역자활센터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2층	061-762-9896
전남곡성지역자활센터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75	061-363-4370
전남나주시지역자활센터	전남 나주시 오포길 31(영산동)	061-333-8890
전남담양지역자활센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2 kt담양지사 3층	061-383-9909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전남 목포시 해안로 173번길 34	061-242-0003
전남무안지역자활센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07 5층	061-452-6225
전남보성지역자활센터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길 150-4	061-857-4664
전남순천지역자활센터	전남 순천시 남제새길 19	061-744-3825
전남신안지역자활센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53 압해도성당 1층 교육관	061-271-5505
전남여수지역자활센터	전남 여주시 공화북 1길 8 공화동1299	061-662-4402
전남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	전남 여주시 고소 4길 6-4 2층	061-663-8377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4길 7-1	061-353-2000
전남영암지역자활센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새동네길 22-1	061-471-9933
전남완도지역자활센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22-1	061-554-1001
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12 형제빌딩 301호	061-394-0072
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17	061-862-8266
전남진도지역자활센터	전남 진도군 진도읍 공설운동장길 14-8	061-542-6900
전남함평지역자활센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천좌길 12-8 기각리196-4	061-323-9556
전남해남지역자활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17(해리 167-1)	061-532-0043
전남화순지역자활센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11 101호	061-375-4111
전남고흥지역자활센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장전신전길 75	061-834-0037
전남구례지역자활센터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구례종합사회복지관 1층	061-781-7970
서울강남지역자활센터	서울 강남구 역삼로 107길 20-30 대치유수지체육공원 2층	02-445-1801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189(천호동)	02-488-4585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	서울 강북구 덕릉로 46 신우빌딩 3층	02-982-1414
서울강서지역자활센터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80(화곡동)	02-2605-1222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335 가양1동 179-1	02-3664-5920
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	서울 관악구 문성로 236 평희빌딩 5층	02-867-8381

기관명	주 소	연락처
서울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서울 관악구 양녕로 117 벽산블루밍아파트 관리동(302동 옆) 2층	02-876-6730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247 4층	02-499-8373
서울구로지역자활센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6길 54 시설관리공단 별관 2층	02-838-5660
서울구로샨터지역자활센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35가길 10-3(구로동)	02-856-0512
서울금천지역자활센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 205 4층	02-806-1577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730 상계불암대림아파트상가 303호	02-939-3538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8길 19-38, 302호	02-941-6594
서울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5길 56 4층	02-952-7184
서울도봉지역자활센터	서울 도봉구 마들로 664-17 3층(도봉동)	02-955-1317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5층	02-2242-7578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	서울 동작구 등용로 47 4층	02-822-7707
서울마포지역자활센터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301호	02-312-7942
서울서대문지역자활센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1마길 86-77(연희동)	02-324-1027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	서울 성동구 매봉길 21	02-2299-6658
서울성북지역자활센터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4길 47-1 지층	02-927-2420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	서울 양천구 오목로 41 5층	02-2601-6039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5길 3 경남아너스빌 상가동 2층	02-848-0600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72(남영동)	02-797-5050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서울 은평구 갈현로 8 신창빌딩 6층	02-307-1186
서울종로지역자활센터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59-3	02-3673-3963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서울 중구 난계로 127	02-754-2228
서울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서울 중랑구 신내로10길 19 3층	02-436-4767
서울서초지역자활센터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9길 1-3 서초선포레아파트	02-2058-0790
서울송파지역자활센터	서울 송파구 풍성로5길 16 자상1,2층 일부	02-416-7119
울산남구지역자활센터	울산 남구 두왕로 329번길 6 4층	052-227-0991
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	울산 동구 상진 1길 21번지(방어동)	052-235-3635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	울산 북구 동대8길 40 보훈회관 3층	052-291-1984
울산중구지역자활센터	울산 중구 화합로 305 302호	052-281-5480
울산울주지역자활센터	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 23 3층	052-238-5818

자활에세이 17번째 이야기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한 자활”

발 행 일 | 2019년 12월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_ 02.3415.6900

인 쇄 처 | 경성문화사 _ 02.786.2999

<비매품>
